책을 내면서

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보통사람과 구별되는 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단마디로 대답할수는 없다.

인류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와 함께 시대와 사회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온 수많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여있다.

동서고금의 문인들은 이러한 위인들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위인전을 써냈다.

그러나 위인의 업적을 전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위인의 세계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보통인물과는 대비도 안되게 특출하기때문일것이다.

21세기의 오늘 인류사에 새로운 위인전을 새겨가는 위인은 누구인가.

세계의 시선이 지구상의 동방조선에,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께 쏠리고있다.

세계 국가령도자들가운데서 가장 젊으신 **김정은**최고령도자, 그러면서도 그처럼 당당하고 그처럼 거침없으며 그처럼 여유작작하신 그이이시야말로 현시대의 위인이시다.

우리 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적인 사변들이

그렇게 말하고있다. 세계가 그렇게 보고있다.

력사의 그 어느 정치가도 내세우지 못한 **김정은**원수님의 담대한 목표, 거창한 실천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뿐아니라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인 풍모는 시대를 격동시키는 수많은 일화들을 낳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있으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가 얼마나 거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겨가시는 령도의 자욱자욱마다에는 시대를 장중히 울리는 진리가 있고 력사와 인류의 키를 크게 하는 영원한 활력이 있다. 아울러 력사와 시대를 선도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걸출한 성인의 비범한 위인상이 비껴있다.

편집부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자욱따라 이 땅에 무수히 새겨지는 일화들중의 일부를 묶어 《일화로 보는 위인상》(5)을 내놓는다.

차 례

1

2

1

낮이나 밤이나 인민,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인민을 위한 행복의 꽃바다를 펼쳐줄 일념으로 정과 열을 끓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으로, 한생을 바쳐 떠받드실 영원한 하늘로 심장에 정히 새겨안으신 인민을 신성히 받드시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화산처럼 분출하는 뜨거운 사랑과 억년바위도 녹이는 열화와 같은 정으로 인민사랑의 력사를 새겨가고계신다.

□ 승리산기슭에 수놓아진 사랑의 전설

주체106(2017)년 11월 어느날 승리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이곳 로동계급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몸소 해보신 자동차운전

공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을 만나보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마중나온 기업소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러시며 어서 화물자동차들을 보자고 이르시였다.

기업소안의 넓다란 경기장에 갓 생산되여 나온 화물자동차들이 즐비하게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렬을 지어 세워놓은 화물자동차들을 바라보시며 대단하다고, 즐비하게 늘어선 자동차를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자동차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부속품과 협동생산품, 자동차의 연유소비기준과 한해 생산량, 자동차의 마크와 지

구장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시운전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5t급화물자동차를 운전해보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금성뜨락또르공장에 가서 뜨락또르를 운전해보았는데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만든 자동차도 운전해보겠다고 하시며 운전석으로 오르시였다.

일군들은 시운전을 한데 불과한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보겠다고 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가슴을 옥죄였다. 혹시 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운행도중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뇌리를 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듯 부드러운 눈길로 어떤 경제지도일군들은 이 련합기업소에 내려와 부속품가공이나 수지제품생산, 자동차의 외형이나 보고 생산을 잘한다 못한다, 자동차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직접 운전해보아야 그 성능을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수 발동을 거시고 경기장의 주석단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시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이께서 몰아가시는 차에 쏠리였다. 화물자동차생산에 이바지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는듯, 애오라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그리며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산전투를 벌리던 그 불꽃튀는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는듯 차를 몰아가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뜨거운 격정이 넘치시였다.

경기장주석단앞까지 질주하던 차는 되돌아와 처음 위치에서 멈춰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운전실문을 여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일군들에게 5t급화물자동차의 성능이 괜찮다고, 잘 만들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기업소일군으로부터 시운전진행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이 자동차의 발동은 단번에 걸린다고 하시면서 발동이 잘 걸릴뿐아니라 조향손잡이도 만문하며 기관의 소음준위도 그만하면 일없다고, 크라치와 변속기는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만든 뜨락또르의것보다 나은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5t급화물자동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 나서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동차의 외형도 괜찮다고, 운전실에 록음기도 설치해놓았다고 하시면서 5t급화물자동차는 크기도 알맞춤하고 쓸모도 있기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벌써부터 5t급화물자동차진출식이 끝난 다음 자동차를 달라고 하는 단위들이 많다고,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이번에 5t급화물자동차를 생산하면서 경험도 쌓고 로동계급의 투쟁본때도 달라졌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비록 이번에 거둔 성

과가 크지 않고 시작에 불과한것이지만 좋은 싹이라고 하시면서 5t급화물자동차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 정신력이 낳은 산물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몸소 자동차를 운전해보시면서 로동계급의 남모르는 수고도 헤아려주시며 그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한없는 은정에 목이 꽉 메여올랐다.

《우리가 만든 차를 원수님께서 직접 운전해보시였다!》

《여보 로친, 내가 연마한 그 차를 경애하는 그이께서 몰아보셨다오!》

《아버지, 원수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전대를 잡으시고 쌩쌩 달리셨다는게 사실이나요?》

승리산기슭의 마을과 마을들에서,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만든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보셨다는 소식이 커다란 환희속에 터져나왔다.

꿰진 바지를 깁는 식으로 하지 말라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일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하시는 간곡한 당부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련합기업소의 후방공급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후방공급사

업을 개선하는데서 기본은 련합기업소 후방토대를 잘 닦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련합기업소에서 축산을 거의나 하지 못하고있다는데 평안남도에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축산을 잘하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고, 이 련합기업소에서도 그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여 후방토대를 닦는 사업을 잘해보아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기업소일군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종업원들이 많은 도내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을 위한 후방토대를 그쯘히 갖추고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얼마나 잘해오고있는가. 그래서 전국에 소문을 내고 또 경애하는 그이께는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드렸던가. 그런데 우리들의 기업소실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책에 모대기는 기업소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축산토대를 비롯한 후방토대를 닦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방토대를 닦는 사업을 꿰진 바지를 깁는 식으로 하지 말고 백년을 내다보고 만년대계로 하여야 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꿰진 바지를 깁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일군들의 폐부를 정통으로 찌르는 지적의 말씀이시였다.

사실 이곳 련합기업소에서도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일군들이 동분서주하며 뛰여다녔지만 결과는 시원치 못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든든한 후방토대가 없는데 있었다. 그런 까닭에 후방사업에서는 일관성이 없었고 후방일군들이 추궁이나 면하려고 굼때는 식으로 일하고있었다. 그야말로 바지가 꿰지면 부랴부랴 깁고 후에 다른데 꿰지면 또 깁는 식이였다.

바로 이러한 련합기업소의 후방사업실태를 경애하는 그이께서 적라라하게 꿰뚫어보시고 가장 적중한 표현으로 지적해주시였으니 기업소일군들의 자책은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일군들에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후방토대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백년을 내다보고 련합기업소의 후방토대를 잘 닦아주어야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는 기업소일군들은 신심에 넘쳤다. 백년을 내다보고 꾸려진 후방토대의 덕으로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만발한 로동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세대수까지 헤아려 보내주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며 시종 밝은 표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오늘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돌아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현지에 나와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보면 힘이 솟는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도 새 힘이 용솟음치는것만 같았다.

일군들이 그이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고있을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일군들에게 지금은 도루메기잡이철이라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에게 도루메기를 보내주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이 세차게 설레였다. 로동자들을 위한 든든한 후방토대를 갖추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물고기까지 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니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인들 이보다야 더하랴 하는 생각으로 목이 꽉 메였다.

감격에 설레이는 일군들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기업소일군을 보시며 세대수가 몇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이 련합기업소에 도루메기를 얼마나 보내주어야 하겠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타산해보아야 하겠다고 과업을 주시였다.

일군들의 격정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 세대수까지 헤아려보시며 우리 로동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끝은 정녕 어디인가.)

일군들모두의 심장에서 터쳐나온 무언의 웨침이였다.

며칠후 승리산기슭의 집집마다에서 푸짐하게 차린 물고기

식탁을 마주한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수저를 못 들고 뜨거운 눈물만 삼키고있었다.

다 데리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시며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였다.

공장일군이 그이께 저희들은 원수님께서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였는데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은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무랍없는 청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여기서 찍자는것인가고 물으시였다.

이때 동행한 일군이 촬영인원이 모두 모이자면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력혁신자들이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꼭 찍고싶어한다는데 찍자고 하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을 로력혁신자들이 다 모인 다음에 찍자고, 그동안 한개 직장을 더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로동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시여 더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그이의 고매한 인덕에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승리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에 이어 전동차를 타시고 정밀가공직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동

행한 일군에게 공장의 로력혁신자들이 사진을 찍으러 다 모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아직까지 로력혁신자들이 모이지 못하였으면 정밀가공직장에서 일하고있는 로동자들과 승리기관직장 기관본체가공구역에서 일하고있는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가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이 울리는 순간 장내는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것만도 분에 넘친데 로동자들을 다 데리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니 경애하는 그이의 하늘같은 도량에 누구나가 다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다 데리고 사진을 찍으시겠다는 소식에 접한 로동자들이 울고웃으며 여기저기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촬영준비가 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전동차에서 내리시여 촬영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만세!》의 합성을 터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그이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그처럼 간절히 바라고바라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는 소식은 날개라도 돋친듯 삽시에 승리산기슭은 물론 온 나라에 사랑의 전설로 퍼져나갔다.

□ 류다른 《봉사》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을 앞둔 때인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오후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세상에 보란듯이 현대적으로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의 준공식을 앞두고 물놀이장에서 많은 손님들을 받아 봉사를 하였는데 그 봉사대상이 전부 일군들이였다.

준공식도 하기 전에 특별봉사를 받으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일군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일에는 언제나 앞장서면서도 공로와 평가는 언제나 인민들에게 양보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여 희한하게 꾸려진 물놀이장에서 인민들보다 먼저 봉사를 받게 되였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날 일군들과 함께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을 돌아보니 정말 희한하다고, 특히 파도수조를 보니 바다가의 백사장에 서있는것 같다고, 설계도 잘하고 군인건설자들이 시공도 참 잘하였다고 거듭 평가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후에 일군들을 위한 봉사를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

이렇게 되여 국가적인 준공식도 하지 않은 때에 일군들이 봉사를 받게 되였던것이다.

일군들의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다.

특히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각이하고 색갈도 다양한 아름다운 물미끄럼대들에서 어린애마냥 좋아라 떠드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닫김식과 열림식,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갖가지 물미끄럼대를 타면서 기쁨을 한껏 누렸다.

그가운데서도 쏜살같이 아래로 미끄러져내리다가는 순간에 우로 솟구치기도 하는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를 신바람나게 타면서 일군들은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다 푸는듯 하였다.

그러한 때에 또다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모습을 이슥토록 바라보시였다.

잠시 사이를 두시다가 물미끄럼대의 이음짬에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시며 물미끄럼대 이음부위를 잘 처리해서 인민들이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리용할 때 상하지 않게 이음짬들이 제대로 되였는지 잘 보라고 오늘 일군들을 먼저 태워보는것이라고, 씨리콘빠데로 마감처리를 깨끗이 해서 인민들이 미끄럼대를 타면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제서야 동행한 일군들은 국가적인 준공식에 앞서 일군들을 위한 봉사를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뜻을 알게 되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물놀이장의 안전상태가 걱정되시여 하루에만도 두차례나 물놀이장을 찾으시고 또 이렇듯 일군들에 대한 류다른 《봉사》까지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여전히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일군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조직해주신 일군들을 위한 류다른 《봉사》에 깃들어있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온 세상에 소리쳐 전하려는듯…

□ 꿈속의 소원도 풀어주시여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수많은 재해와 각종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으며 그로 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 또한 헤아릴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는 공화국에서 보게 되는 경이적인 현실은 세상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는것인가.

주체105(2016)년 10월 함북도 북부지역의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소년은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은 꿈에 빠졌다.

학급동무들과 함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수족관과 실내물놀이장 등 여러곳에서 즐겁게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꿈이였다.

새벽에 일어나서야 그것이 꿈이라는것을 알게 된 소년은 그것이 너무도 아쉬워 학교에 가서도 꿈이야기를 동무들에게 들려주며 실현 못할 꿈만 꾸었다고 투정질을 하였다.

그러한 때에 소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또다시 불러주시였다는것이였다.

소년은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전에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소년들이 이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간 뒤였고 또 그때는 겨울이 닥쳐오고있던 때였던것이다.

소년은 알수가 없었다. 어떻게 되여 그런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는지.

며칠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서 야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야영생활을 하고있는 학생소년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과 일군들모두가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세상에 아직 있어보지도 못한 그 현실에 피해지역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세상에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앉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은 많아도 피해지역 아이들이 야영소

로 간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런 일은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변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재앙의 파도가 몇천만번 다시 휩쓸어든다고 해도 그이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래일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을것이라고 가슴속 진정을 터치고있었다.

피해지역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북부피해지역에 있는 초급중학교 학생들가운데 이번 야영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들의 수자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올해에 야영을 한기 더 조직하여 그들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정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겨울이 닥쳐오는 때에 야영을 한기 더 조직하여 피해지역 아이들이 모두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에 목이 꽉 메여올랐다. 더우기 야영에 빠진 아이들의 수자까지 죄다 알고계시는 그이의 세심하고 다심한 사랑의 세계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꿈속의 소원을 풀게 된 소년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떠나는 날이였다.

담임선생님은 소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서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너의 꿈속의 소원마저 다 알고 풀어주시였다고.

□ 사연깊은 돌의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수가에 자리잡은 연풍과학자휴양소에는 절세위인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깃들어있다.

그가운데는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있는 사연깊은 돌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주체103(2014)년 10월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마음껏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될 또 하나의 휴양소가 완공된것이 그리도 기쁘신듯 그이께서는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이 꾸려놓은 포도원 휴식터에도 들리시였다.

세번째 휴식터에 이르시여 의자들을 빙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어느 한 의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보기에도 다른 의자들보다 품위가 더 있어보이는 의자였다.

다른 화강석의자들에는 초물방석들을 깔아놓았지만 그 의자에는 보기에도 우아하게 만든 색다른 방석까지 놓여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시며 동행한 일군들을 바라보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그이께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시면 쌓이신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건설자들이 수백kg이나 되는 화강석을 채취하여 정성껏 다듬어 특별히 만들어놓은 의자이라고 자랑삼아 설명해드렸다.

그리고는 오리털을 넣고 비단천으로 한뜸두뜸 바느질을 해가며 성의를 다한 소행도 장한듯 곁들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간절한 청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여기서 좀 쉬고 가십시오.》

순간 그이의 안색이 대번에 흐려지시였다.

주변의 의자들과 화제로 된 의자를 다시한번 번갈아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건 옥좌인가 아니면 권좌인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얼굴은 대번에 굳어졌다.

옥좌라고 하면 옛날 왕들이 앉는 자리를 이르는 말이고 권좌라고 하면 권력의 자리라는 뜻이다.

잠시나마 편히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소원을 담아 만든 의자였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옥좌, 권좌에 비기신것이였다.

누구도 아무러한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못박힌듯 서있는 일군들에게 이건 누구를 위한것인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거듭되는 물으심에 이번에도 일군들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자책감으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인민을 위해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은 아무리 사소한것일지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나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며 자그마한 특전과 특혜도 모르시는 위대한 평민.

오늘도 휴양소일군들과 휴양생들은 그날의 사연깊은 돌의자를 보며 걸음을 쉬이 떼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다시금 심장에 깊이 새겨안는다.

□ 《합격도장》의 주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흙먼지가 날리는 멀고 험한 길을 이어 찬바람부는 물가의 나무숲을 헤치시며 몸소 잡아주신 자리에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넘쳐나는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첫 휴양생들을 받아들인 때로부터 어느덧 여러해가 되여온다.

그 기간 수천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휴양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지금도 이곳은 휴양생들로 흥성거리고있다. 휴양생활을 위한 온갖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구비되여있는 으뜸가는 곳에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줄 모른다.

허나 어찌 웃음만이 꽃피는 곳이라고 하랴. 멋들어진 휴양각들을 보아도, 꽃향기 넘치는 휴식터들과 어서 타라고 부르는듯 호수가에서 고물을 들썩이는 뽀트들을 보아도 눈굽을 적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연풍과학자휴양소가 가슴뜨거운 그 유래와 독특한 건축미, 더없이 훌륭한 휴양조건으로 하여 세상에 크게 소문났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적지 않다.

아래의 일화도 그중의 하나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푸른 물 출렁이는 호수를 배경으로 울창한 수림속에 특색있게 건설된 휴양소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흥겹고 다채로운 휴양생활을 하면서 피로도 풀고 몸도 단련할수 있는 최상급의 휴양소가 일떠선것이 못내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돌아보면서 휴양소운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종합봉사소 1층홀에 꾸려진 기념품매대에 들리시여서는 휴양소에 왔다가 기념으로 남는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기념품매대대신 사진현상설비를 차려놓도록 하시였고 주방에 들리시여서는 설비상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그릇소독을 더 잘할수 있도록 대책도 친히 세워주시였다. 2층홀에 설치한 탁구판을 보시고서는 여기에서 휴양생들이 탁구를 치면 탁구공이 아래로 굴러떨어져 그것을 줏자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면서 탁구판을 옮기고 다른 운동기재를 놓아주도록 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료실,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있는 홀에 이르시였다.

그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일군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휴양소가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미소속에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저으기 걱정이 실려있었다.

참으로 뜻밖의 말씀이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휴양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종일관 그려보신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처럼 희한한 휴양소를 일떠세워주시기까지의 그 모든 나날에 늘 심중에 안고계신것이 뜨겁게 어려왔던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과학자들의 모습이였다.

자신께서는 일년 내내 과학자들을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위해 숲이 울창하고 호수도 끼고있고 경치 또한 뛰여난 명당자리에 세상사람들이 여태 본적이 없고 상상조차도 해보지 못한 기막히게 황홀한 휴양소를 일떠세워주시고도 아직 부족하신듯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끝없는 사랑…

그이의 은정깊은 걱정은 계속되였다.

덕수시설과 물속초음파안마장치, 휴식의자 등이 갖추어져있는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합격될것 같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일군은 정말 과분하다고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긍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야외물놀이장과 다용도야외운동장, 휴양각 등을 련이어 돌아보시면서 꾸린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후에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환히 웃으시면서 이만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국가지도자가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설주, 시공주가 되여 일떠세운적이 있으며 품 한자루,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그것을 리용할 과학자들을 《합격도장》의 주인으로 내세운적이 있었던가.

정녕 쿵― 하고 산천에 메아리치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려주신 《도장》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이 감격의 눈물속에 《합격》이라고 찍는 소리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운영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휴양소를 떠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다녀가신 후 과학자, 기술자들의 첫기 휴양이 시작되였다.

휴양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장은 격정의 바다로 변하였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금방석에 우리 과학자들을 앉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과학자들이 터치는 감사의 목소리는 연풍호기슭으로 끝없이 울려갔다. …

이것을 어찌 연풍과학자휴양소에만 깃든 이야기라고 하랴.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천만로고를 바쳐 고귀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인민은 그 창조물들에 《합격도장》을 찍는 이런 격동적인 화폭, 희한한 이야기가 이르는 곳마다에 수놓아지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 아닌가.

□ 《안경집》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6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그이를 안내해드리던 농장의 일군은 이 보급실을 꾸리는데 평양안경상점 일군이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안경상점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데 자기도 한몫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 농장에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농장의 일군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던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그 동무를 자신도 잘 알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가정래력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다.

그는 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한 그 숭고한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연필을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송대관의 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애국의 한길에서 한생

을 바친 아버지처럼 그와 일가는 수십년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그래서 절세위인들께서는 수십차에 걸쳐 그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고 몇년전에 그의 아들이 수많은 원호물자를 준비하여 인민군대에 보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원군열의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지난 시기에도 원군을 많이 하였다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런데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또다시 그 일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가정은 대대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애국자가정이라고, 그가 괜찮은 동무라고 또다시 치하하시였다.

그의 가정에 대한 치하가 거듭될수록 일군들은 그가 돋보였다. 그러면서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 일군의 가정을 왜 그렇게도 특별히 잊지 못하실가 하는 생각이 커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에 새로 꾸린 살림집들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살림집에 놓여진 TV를 보시며 농장일군에게 TV는 어떻게 갖추어주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액정TV는 평양안경상점 일군이 가져다준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더없이 대견해하시며 그 동무가 용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뭘 좀 도와주고는 생색을 내는데 이

동무는 그런걸 모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안경집》이 괜찮다고 또다시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안경집》!

일군들은 그때에야 무릎을 쳤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시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는 길이 곧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애국은 곧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드는 마음이고 투신이며 헌신이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를 묵묵히 바쳐가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 몸소 가지고 가신 강냉이이삭

주체105(2016)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였다.

농작물전시대에 이르시여 이곳 농장에서 연구한 다수확품종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황금빛으로 물든 시험포전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며 옆에서 동행하던 한 일군에게 어서 가서 농작물전시대에 있는 강냉이이삭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그 강냉이로 말하면 원수님께서 농작물전시대를 돌아보실 때에 높이 평가하신 품종이였다.

생육기일이 짧고 병해충견딜성이 강하며 수확고가 높아 두벌농사에 아주 적합하였고 키가 작아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거의나 받지 않아 공화국의 기후풍토에 꼭 맞는 다수확품종이였다.

잠시후 일군이 가져온 강냉이이삭을 기쁨속에 받아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정말 볼수록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다고, 자신께서는 오늘 하늘에서 별을 딴 기분이라고 자신의 심중을 터놓으시였다.

그이께서 받아드신 강냉이이삭.

정말이지 그 강냉이이삭은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흐뭇해

지는 팔뚝같은 이삭이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의 일군에게 이 강냉이이삭을 자신께서 가지고 가겠다고, 새로 육종한 이 강냉이를 일군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라는데 대하여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강냉이이삭이 들어간 그이의 웃옷주머니는 대번에 불룩해졌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흥그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그 강냉이이삭을 꺼내드시였다. 그러시고는 얼마나 멋있는가, 정보당 10여t을 수확할수 있는 강냉이라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정말 볼수록 기분이 즐거워진다고, 자신께서는 며칠동안이고 밥을 먹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의 포전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도 다수확품종연구에서 거둔 성과는 종자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는데 대하여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고 또 웃으시였다.

일군들도 모두가 즐거움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루하루가 이런 기쁨의 날과 달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군들의 가슴마다

에 차넘치고있었다.

그러나 그이의 이 기쁨속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자리잡고 있는줄을 일군들은 다는 몰랐다.

얼마후였다.

포전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다수확품종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한것이 정말 아쉽다고, 한평생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온 나라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던 수령님께서 이 다수확품종들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아마도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그 팔뚝같은 강냉이이삭을 보여드리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시였으리라.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호주머니에까지 넣었다가 다시 꺼내시여 보고 또 보시는 그 강냉이이삭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참으로 생각이 깊어지게 하는 강냉이이삭이였다.

□ 오열을 터뜨린 녀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네번째로 찾으신 동해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에서 있은 일이였다.

그이를 맞이한 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끝없는 감격과 행복속에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그리웁고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던가.

자나깨나 물고기를 많이 잡은 성과를 그이께 아뢰고싶어 하루를 천날맞잡이로 기다려온 그들이였다.

하지만 한사람만은 창문너머로 밖을 주시하며 안타까움에 모대기고있었다.

그는 사업소지배인의 안해였다. 수산사업소적으로 혁신자로 소문났던 그가 불치의 병에 걸려 운신하기조차 힘들어하게 된것은 몇년전부터였다.

풍어의 기쁨 넘쳐나는 부두에 이제는 설수 없게 되였다는 사실앞에서도 그는 비관하지 않았다. 기어이 병을 털고 일어나 또다시 초소에 서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한몸을 지탱해나갔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수차례나 찾으시여 풍어기를 날리며 돌아온 어로공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가족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며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실 때마다 그는 너무도 안타까워 입술을 깨물었다.

오실 때마다 부두에서 일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눈물속에 지새운 밤은 그 얼마였던가.

정녕 이 몸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한번 서볼수 없단 말인가.

그는 집안의 벽면을 가득 채운 기념사진,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남편이 찍은 사진들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한생 우리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녀보지 못하겠구나.)

이러한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계신다는것이였다.

이날 사업소의 어로실적을 두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모두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또다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사업소의 일군으로부터 지배인의 안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지난해 사업소종업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실 때에도 지배인의 안해가 몸이 불편하여 참가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던 그이이시였다.

한동안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사업소를 3차례나 찾아주어 기념촬영을 해주었지만

지배인의 안해가 건강이 허락치 않아 한번도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어서 데려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곁에 섰던 지배인의 눈가에 눈물이 핑 고이였다.

(그렇게도 서보고싶어하던 영광의 자리에 안해가 서게 되다니…)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해가 이번에도 기념촬영에 빠지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어서 내 차를 타고 가서 빨리 데려오라고 일군에게 독촉하시였다.

일군은 집이 가깝기때문에 일없다고 말씀드렸다.

그제야 마음을 놓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지배인동무의 안해가 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자고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지배인은 여전히 어깨를 떨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분초가 새로우신 그이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것이 죄스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간 흘렀을 때 지배인의 안해가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그를 반겨주시였다.

안해는 어푸러지듯 달려와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해를 만나니 반갑다고 정겨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는 물고기잡이에 아무런 보탬도 못하는 자기를 이렇게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니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흐느끼며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지배인의 안해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남편의 뒤바라지를 잘하여 그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지배인과 안해는 물론 주위의 일군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령도자와 평범한 녀인사이의 혈연의 뉴대를 보여주는 불멸의 화폭을 보며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흐느껴우는 지배인과 그의 안해의 팔을 량쪽에 끼시였다.

정녕 력사가 흘러 있어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숭고한 사랑의 그 화폭속에 절세위인을 어버이로 모신 내 조국의 참모습,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비껴있었다.

□ 령감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동해의 수산사업소들에 물고기사태가 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온 천하를 얻으신것 같은 심정이시였다.

애지중지 키워가는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이 물고기가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있는 재롱스러운 모습, 갖가지 물고기들이 오른 풍성한 식사실에서 웃고 떠드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 자식을 군대에 떠나보낸 부모들이 물

고기를 실컷 먹는다는 아들딸들의 편지를 받아들고 기쁨에 눈물짓는 모습.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런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친히 펜을 드시고 친필서한을 한자한자 쓰시였다.

뜻밖의 사랑의 친필서한에 접한 동해의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크나큰 감격으로 설레였다.

시작에 불과한 성과를 크게 평가하시며 몸소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다니…

친필서한에 무한히 고무되여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매일같이 련속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날마다 높아지는 이 기적적인 물고기잡이성과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11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몸소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업소가 거둔 물고기잡이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일군들은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누구보다 먼저 축하를 받으셔야 할분은 오늘의 눈부신 성과를 안아오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우러르며 저저마다 원수님의 친필서한에 무한히 격동된 우리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산악같이 떨쳐나 어로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친필서한을 받아안은 어로공들의 사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지금 같아서는 동해의 물고기를 반반하게 다 건어낼것 같다고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며 기쁨에 넘친 어조로 수산열풍을 일으키기 전에는 1년에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어획고가 너무 한심하여 1년에 얼마 잡았다는 통계조차 똑똑치 못하였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다 주저앉았던 수산사업소들이였다고, 자신께서 수산에서 인민군대가 선봉적역할을 하자는 구호를 제기한 다음 인민군대의 물고기잡이실적이 크게 장성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때 일군이 서해에서도 건뎅이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의 덕분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어느 한 수산사업소 지배인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아침저녁 계속 울었다고 아뢰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용선령감 말이요? 하시며 감회깊은 어조로 그럴거라고, 도루메기잡이 첫날 실적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진봉준령감, 안용선령감 그리고 정다운 동무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그려보면서 올해에 물고기잡이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라고 진정을 담아 편지를 써보내주었다고, 그들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고 분발하였으면 편지를 보내준 보람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안용선을 생각하였다.

그는 환갑이 지난 수산사업소 지배인이였다.

나이를 잊어먹은듯 그는 20대, 30대 어로공들도 무색케 할 정도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어로전투를 지휘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더 큰 날개가 되여주는 사변이 생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물고기잡이성과를 보고받으시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는데 글줄마다에 사랑과 정이 눈물겹게 넘쳐났고 더우기는 나이든 지배인들을 령감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축하해주시고 고무해주신것이였다.

령감!

안용선에게는 세상에 이보다 더 친근하고 살뜰한 부름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친어버이가 아니고서는 자기들과 같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한갖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을 령감이라고 불러주실수 있으랴.

령감이라는 절세위인의 친근한 부름은 안용선에게 기적과 혁신의 나래가 되였다.

그는 어로공들을 불러일으켜 사업소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물고기사태,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시종 기쁨에 넘치시였다.

령감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던 그 주인공들을 생각하시는듯.

그 령감들이 용을 쓰며 동해바다를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 룡을 낳는 수첩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동해의 수산사업소들에 널리 퍼져 나도는 말이 있다.

《동해에서 룡이 났다!》

철부지아이들로부터 바다가동네의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고기배들을 맞이하며 웨치는 이 말.

동해전역에 물고기대풍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이 말속에는 참으로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물고기대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11월 동해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아주시였다.

사업소구내가 넘쳐나도록 쌓여있는 물고기산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사업소일군들에게 물고기잡이전투성과에 대해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두들 대단하다고, 모두 만리마를 탄 기세들이라고, 하륙장에 그야말로 물고기바다가 펼쳐졌는데 정말 희한한 풍경이라고, 정말 만풍년이라고, 이런 물고기풍년은 어디 가서 돈주고도 볼수 없는 흐뭇한 풍경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이 모든 성과가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물고기대풍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고, 정말 꿈에도 보지 못한 물고기대풍이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회가 깊으시였다.

돌이켜보면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몸소 수산전선의 맨 앞장에서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을 하신분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고기배들과 어구자재들을 비롯하여 사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기 위해 로고를 바치신 날과 달들은 그 얼마였던가.

2013년 5월 비내리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패배주의자들의 한숨소리를 가셔내고 거대한 수산열풍을 일으키도록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 아니시던가.

감사의 정이 어린 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감회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한동안 깊은 회억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드시며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수산

부문 자료수첩에는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길은 삽시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드신 수첩에 쏠렸다.

수첩의 갈피마다에는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그이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한 일군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수첩이 모든 수산사업소들을 바다를 나는 룡이 되게 하였다고 진정에 넘쳐 아뢰였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물속에 잠겼다가 때로는 공중에 날아올라 구름과 비를 몰아오며 풍운조화를 부린다는 룡에 대한 전설을 재미나게 엮어나갔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업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물고기저장고의 출입문앞까지 가득 쌓여있는 랭동물고기블로크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리시고는 차디찬 그것들을 손수 만져보시며 사람이 들어갈수 없게 가득 쌓아놓았다고, 정말 룡이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눈길이 또다시 원수님의 손에 쥐여진 수첩에 쏠리였다.

룡은 전설속에서만 숨쉬고있는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환상적인 대상이다.

허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수첩에서는 전설속의 그 룡이 진짜로 살아서 풍어의 조화를 불러오고있다.

그러니 그이께서 늘 가지고 다니시는 그 수첩이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는 전설도 현실로 펼쳐주는 룡을 낳는 수첩이 아닌가.

일군들의 생각은 점점 깊어만 갔다.

□ 황금해력사의 1대지배인

주체105(2016)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였다.

사업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옆에서 걸어오고있는 지배인에게 동무가 여기 수산사업소의 5대지배인인가고 물으시였다.

그 순간 지배인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가 5대지배인이라는걸 어떻게 아실가?)

그 의문은 커갔으나 도무지 풀 길이 없었다.

수산사업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현지에 나오시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공급할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신 은정이 어려있는 곳으로서 이미 3명의 영웅지배인을 배출한 사업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이 사업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수 있는 든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주시였으며 몇해전에는 친히 찾아오시여 사업소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이 수산사업소의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며 지금 지배인이 5대지배인이라는것을 아시였던것이다.

생각에 골똘하던 지배인이 5대지배인이 맞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윤용일지배인은 8월25일수산사업소의 5대지배인이지만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데서는 1대지배인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황금해력사의 1대지배인!

지배인은 그만 굳어졌다.

수산사업소에 제일먼저 현대적인 고기배를 보내주시고 비바람사나운 이곳을 찾으시여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고 고기배의 이름도 《단풍》호라 지어주시며 앞길을 밝혀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 아니신가!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하면 자신께 편지로 기쁜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 6개월사이에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는 전과를 올려 물고기전경을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편지도 몸소 보아주시며 사랑의 친필서한도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신듯 한겨울에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아오시여 지배인을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동에 겨워있는 지배인을 보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8월25일수산사업소는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며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기들의 더운 피와 땀으로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페지를 쓴 위훈의 창조자들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1대지배인!

여기에는 오늘뿐만아니라 먼먼 래일에도 황금해력사창조의 제1선에 설데 대한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지배인의 심장속에서는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 제 한생토록 황금해력사창조의 제1선에 내세워주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 깊은 뜻을 새겨주는 철사다리

봄날치고도 류달리 쾌청하던 어느해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야강2호발전소를 찾으시였다.

절세위인을 모신 기쁨을 노래하는가 저수지의 푸른 물은 천구슬, 만구슬로 부서지며 눈부신 빛을 뿌리였다.

출렁이는 물결을 품어안고 거연히 서있는 언제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야강2호발전소 언제를 정말 멋있는 위치에 건설하였다고, 지금과 같은 갈수기에도 발전소저수지에 많은 물이 차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발전소운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금야군의 일군은 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해놓고서도 발전기가 부족하여 1호발전기밖에 돌리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2호발전기는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금야강2호발전소가 능력대로 전기를 생산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한 일군에게 발전기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군의 일군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안타까움을 대번에 헤아리시고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감격에 겨워있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금 언제쪽에 시선을 얹으시며 저기로 올라가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조정지순회점검다리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철사다리를 띄여보시고 반색을 지으시였다. 그러시며 철사다리가 있다고, 저쪽으로 올라가자고 이르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군일군의 심정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 철사다리는 발전소근무성원들이 언제와 수문의 상태, 수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이였는데 경사가 매우 급하고 협소하기 그지없었다. 지금껏 많은 일군들이 발전소에 와보았지만 과연 그 누가 철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보았던가.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로 오르시겠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일군들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 철사다리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 위험합니다.》라고 간절히 아뢰였다.

철사다리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걱정을 누잦혀주시려는듯 사다리를 몇번 당겨보시고는 더 만류할 사이도 없이 올라서시였다.

한계단 또 한계단…

옥죄여드는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던 일군들이 뒤이어 철사다리를 타고 올랐을 때 그이께서는 벌써 조정지순회점검다리의 한가운데 서시여 주변의 전경을 부감하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수량이 괜찮다고, 물이 언제나 차있으니 전기를 생산하는것은 물론 그 물로 음료수도 보장하고 농사도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의 일군에게 군안의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군안의 인민들이 전기덕을 보고 먹는 물도 충분히 보장받으니 로동당만세를 부릅니다.》

일군의 자랑에 겨운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제 발전기를 더 설치하여 전기덕을 단단히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군일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제서야 뭇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여기에까지 굳이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푸르른 물결에 비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안아보고싶으시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전기강, 보배강의 출렁임소리를 듣고싶으시여 위험한 철사다리도 서슴없이 타고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한없는 격정에 눈을 슴벅이는 군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군당위원장은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군에 어떤 지방산업공장들이 있는가, 개건현대화 계획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일일이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당위원장은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안의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거듭 받아안는 군일군의 눈앞에는 방금전 그이께서 몸소 타고 오르신 철사다리가 삼삼히 어려왔다.

철사다리,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수범으로 일군들을 이끌어 세워주신 복무의 좌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험한 길도 선뜻 택할줄 아는 일군, 바로 그 길에서 인민생활의 밑바닥까지 헤아려보고 인민의 웃음꽃을 더 활짝 피워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은 력사의 증견자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지금껏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던 철사다리는 온 나라의 관심사로 되였다. 이제는 철사다리옆에 번듯한 계단을 따로 내였건만 발전소를 찾는 사람들 누구나 약속이나 한듯 사연깊은 철사다리를 타고 오른다. 어느덧 그것은 어길수 없는 로정으로 되였다.

어찌 발전소에만 생긴 로정이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에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묵묵히 걷고있는 온 나라 일군들의 가슴속에 바로 그 로정, 사연깊은 철사다리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는것이 아니겠는가.

□ 눈물속의 차렷구령

주체102(2013)년 3월 어느날 장재도에 대한 두번째 현지시찰을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창으로 나오시여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시였다.

얼음장같이 차거운 바다물은 잔파도를 일구며 쉬임없이 섬기슭으로 밀려왔다 밀려가고있었다. 우수에 풀렸던 대동강이 경칩에 다시 얼어붙는다고 바다바람 또한 몹시 랭랭했다.

그이께서는 바다쪽에서 눈길을 돌리시며 돌아서시였다.

섬기슭까지 따라나온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까지 장재도방어대에 두번째로 왔는데 중대에 정이 들었다고, 오늘 돌아본 모든것이 잊혀질것 같지 않다고 정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깊은 회억에 잠기시는듯 사이를 두시였다가 지난해 8월 장재도에 왔다갈 때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오래동안 손을 저으면서 바래워준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데 오늘 또 그들이 바다물속에 들어서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일군들모두는 지난해 8월 바로 이 섬기슭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래워드리며 격정을 이길수 없어 바다물속에 뛰여들던 군인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안겨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들과 헤여지기 아쉬운듯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이 따라서는 중대지휘관을 돌아보시며 또 전번처럼 바다물에 뛰여들려고 하는가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그 물으심에 중대지휘관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따라서는 중대군인들을 돌아보며 머뭇거리였다.

불과 몇달사이에 또다시 위험한 섬초소에 찾아오시여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래워드리는 그 심정은 중대지휘관이나 군인들, 가족들모두가 다를바없었다.

그 격정의 분출을 무슨 수로 억제할수 있단 말인가.

어쩔바를 몰라하는 중대지휘관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장이 군인들을 정렬시키고 차렷구령을 내려야 하겠다고,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여지자고 힘주어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주신 뜻밖의 명령.

이는 군인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여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 동서고금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위대한 령장의 사랑의 명령이였다.

중대지휘관은 군인들을 향해 돌아서지 못하였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어쩔수없이 따라설 섬초소군인들과 가족들을 어찌 차렷구령으로 멈춰세울수 있단 말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구령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듯 그냥 한자리에 서계시였다.

《차렷!—》

드디여 중대지휘관의 목메인 구령소리가 울렸다. 눈물속의 차렷구령이였다.

하지만 여느때는 파도소리보다 더 높던 그의 구령소리가 흐느낌소리와 함께 바다기슭에 잦아들고말았다.

《만세!— 만세!—》

손을 흔들며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며 그리고 어푸러지며 기슭을 내달리며 중대지휘관도 군인들도, 가족들과 아이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부르고 또 부르는 웨침소리가 파도를 짓누르며 울려퍼졌다.

《아버지!—》

□ 배낭이 불룩하면 안된다

주체104(2015)년 10월 라선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복구전투를 지휘하는 일군에게 전투기간에 군민관계에서 제기된것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전투지휘부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번에 오시여 과업을 주신대로 군민관계를 꽃피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리였다.

그런데 라선시의 책임일군은 울적한 목소리로 밤낮으로 피해복구전투를 벌리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우리 라선시인민들은 여러가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가져갔지만 도무지 전달할수가 없었다고, 군인들이 《특별차단초소》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원호물자는 일체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사실 그랬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고 원수님의 병사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백성의 도리겠는가고 하면서 차에 싣고 온 원호물자들을 군인들의 숙영지주변과 건설장구역 등 군인들이 생활하는 가까이에 몰래 떨구어놓군 하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즉시에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그냥 되돌아왔으니 어쩌면 인민의 군대가 인민의 성의를 이렇게도 무시할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감동에 겨워 이야기하는 그 일군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더없이 기쁘신듯 줄곧 웃고계시였다.

그러시고는 전투지휘부 일군들에게 군인들이 부대로 돌아갈 때에도 인민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떠나갈 때 배낭이 불룩하면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시였다.

떠나갈 때 인민군대의 배낭이 불룩하면 안된다!

인민의 군대로서의 참모습을 얼마나 간결명료하게 새겨주시는 말씀인가.

세상에는 나라를 지킨다는 특세로 인민들에게서 짜낸 혈세를 탕진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군대, 인민을 억누르며 인민을 거리낌없이 혹사시키고 침해하여 인민이 무서워하는 군대, 돈을 받고 총알받이로 나서는 군대 등 별의별 군대가 다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군대는 인민들에게 그토록 새로운 창조물을 안겨주고도 사소한 폐라도 끼칠세라 마음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

정녕 인민을 위해서는 친자식, 친혈육이 되여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내댈줄 알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기는 이런 군대를 당할자가 이 세상에 있겠는가.

배낭이 불룩하면 안된다!

걸음을 옮기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의 뇌리에서 이 말이 더 세게 울리였다.

□ 지하초염수가 솟구치는 곳에서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과 군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그러하기에 그이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현지에까지 찾아오시여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이어가시였다.

은덕소금

생산현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기쁘시여 소금더미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소금밭에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것을 보니 흐뭇하다고, 새하얀 소금더미들이 모두 백금산처럼 보인다고 뜻깊게 말씀하시는 그이께 한 일군이 소금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자기들의 한결같은 의향을 말씀올렸다.

너무도 뜻밖에 무랍없이 올리는 청에 동행한 일군들이 민망한 눈길을 그 일군에게 박았다.

잠시 정적이 깃들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금더미를 가리키시며 머지않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지하초염수를 가지고 생산한 소금의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모두의 마음이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렸다.

언제인가 **김일성**종합대학에 꾸려놓은 교육과학전시장을 찾으시여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고 몇달후에는 국가과학원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소금생산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실지 지하초염수에 의하여 생산된 소금은 생산성이 대단히 높았다.

적은 소금밭의 면적으로도 바다물에 의한 생산방법보다 몇배나 많은 소금을 내고있었으며 유기체의 대사기능을 높여주는 칼리움함유량이 10배, 성장발육에 좋은 요드함유량이 1.6배나 많고 세균오염이 없으면서도 비소, 카드미움을 비롯한 중금속함유량이 적어 화학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제약공업에 좋은 원료로 되며 피부접촉감이 좋아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그 어느 공장에서나 요구하고있었다.

이 소금을 리용하면 김치가 인차 시여지지 않고 음식물의 감칠맛도 더 살아났으며 고추장도 별맛이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잠시 사이를 두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소금을 한줌

쥐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을 장군님의 은덕이 깃들어있는 소금이라는 의미에서 《은덕소금》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은덕소금!

뜻도 깊고 부르기도 좋은 이름이였다.

일군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그들의 눈앞에는 사연깊은 은덕소금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여러차례나 보아주신 소금맛

소금생산현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장에 설치한 천막에 들어서시여 인민군대에서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작업현장에 나와 실지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것을 보니 작업장은 비록 크지 않으나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것이 알린다고,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니 일군들의 기쁨도 이만저만 아니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천히 책상우에 시선을 돌리시였다.

거기에는 바다물과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가루소금들이 각각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가루소금

을 집어들고 맛을 보시더니 정말 소금이 부드럽고 맛있다고 기쁨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현장일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이께서 벌써 네번째로 보시는 소금맛이였다.

동행한 일군이 그이의 말씀대로 소금맛을 보고는 맛이 정말 좋다고 그이께 아뢰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마음이 흥그러우시여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의 미소에 온 천막안이 밝아지는것 같았다.

하지만 일군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소금이 맛있어야 얼마나 맛있겠는가.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한가지라도 더 보탬되는 일을 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렇듯 환하게 웃으시며 소금맛이 별맛이라고 계속 곱씹어 말씀하시는것 아니랴.

□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

주체105(2016)년의 삼복철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을 찾아오시였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 땀도 들이지 않으시고 작업장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였다.

바로 그때였다.

유리벽면에 있는 출입문앞으로 가시여 손잡이를 잡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앞을 막아나서며 공장일군이 여기는 염화비닐가스냄새가 나서 안된다고, 밖에서 유리벽면을 통하여 보셔도 된다고 말씀올렸다.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도 그렇게 하실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기때문에 자신께서 무조건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막아나선 일군들을 가볍게 만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작업장안에 성큼 들어서시였다.

정말이지 작업장은 통풍장치가 되여있었지만 염화비닐가스냄새로 차있었다.

공장일군은 어쨌으면 좋을지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의 마음을 눅쳐주시려는듯 웃으시며 생산현장을 바라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포장용기까지 자체로 생산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치하해주시면서 염화비닐가스냄새가 세긴 세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죄송스럽기 이를데없었다. 작업장의 가스냄새가 보통때보다 세여 그것이 모두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쏠리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이렇게 가스냄새가 세게 나는 곳에서 로동자들이 일하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용기작업장에 통풍설비를 더 보강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높은 생산실적보다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고, 염화비닐가스냄새는 사실 공해중의 공해이라고, 자금이 더 들더라도 로동자들이 신선한 공기속에서 로동을 할수 있게 하루이틀사이에 통풍설비를 더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로동자들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

생산실적보다도 로동자들의 건강부터 먼저 념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공장의 일군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지체없이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통풍설비를 더 설치하였다. 하여 수림화, 원림화가 보장된 구내환경과 다름없는 신선한 공기가 작업장안에도 늘 차넘치게 되였다.

□ 한장의 그림을 보시고도

주체104(2015)년 4월 어느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관물게시판에 나붙은 한장의 그림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한 처녀돌격대원이 내리는 눈송이를 두손으로 받아들며 무엇인가 속삭이는 모습이 그려져있는 그림이였는데 제목은 《함박눈이 세멘트로 되여줄수 없을가?》였다.

세멘트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언제공사를 마음먹은대로 내밀지 못하는 돌격대원들의 안타까움이 력력히 어려있는 그림이였다.

돌격대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 그림을 가리켜드리며 이 직관물은 처녀돌격대원들이 세멘트가 떨어져 안타까와하다가 하늘에서 펑펑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그것이 다 세멘트로 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말씀올렸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꿈도 포부도 사랑도 웃음도 많은 돌격대처녀들, 그들이야말로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을 보면서도 사랑과 앞날의 꿈을 속삭일 한창나이의 처녀들이다.

허나 돌격대처녀들이 바라며 속삭인것은 무엇인가.

세멘트가 많아야 발전소를 하루빨리 완공하고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수 있다는 그것이였다.

처녀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멘트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하였겠는가고 나직이 외우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돌격대원들이 창작한 소묘작품들마다에는 청년들의 애국적소행과 락천적인 생활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생활이 있다고 거듭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고 돌격대원들모두가 감격에 설레였다.

자기들의 소박한 마음을 애국적소행이라고까지 그리도 높이 평가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후 발전소건설장으로는 그토록 바라던 세멘트가 줄줄이 들어섰다. 배길, 철길, 자동차길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박눈이 세멘트로 되여줄것을 바라던 그 간절한 소원을 헤아려, 돌격대원들의 애국적지향을 소중히 헤아려 수많은 세멘트를 보내주시였던것이다.

한장의 그림!

평범한 처녀돌격대원들의 소원이 비낀 이 소박한 그림을 보시고서도 그들의 애국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간절한 소원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그이를 그리며 청년건설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격정에 목메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라면 그 누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사연도 다 헤아려보시랴. 그이 아니시라면 한장의 그림에 비낀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그처럼 바라던 소원도 다 풀어주시랴.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 희열이 넘쳐흘렀다.

마음속에선 위대한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에 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청춘들의 굳은 맹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 인민복무의 심장이 멎은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사시장철 그칠새 없는 문수물놀이장의 야외탈의실앞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끄는 하나의 시계가 있다.

거세차게 솟구치는 행복의 파도인양 여러 갈래로 뻗은 안내장식탑에 있는 시계였다.

그런데 문수물놀이장에서 인민들이 누리는 즐거움의 나날, 행복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며 그것이 얼마나 높은 문명의 경지에 올라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쉬임없이 돌고있던 이 시계가 언제인가 멎은적이 있었다.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휴식터를 안겨주시려고 현지지도

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문수물놀이장안내장식탑에 설치한 시계가 한동안 멎어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사실 해당 부문 일군들은 그에 대해 알고있으면서도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탓에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자책에 잠겨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한 시계가 멎은것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관한 문제이라고 나직이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대로 그 문제는 단순한 무책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였다.

인민을 대하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로부터 산생된 문제였다.

자기를 심각히 돌이켜보고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시계가 멎은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들의 심장이 멎은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심장은 뚝 멎는듯싶었다.

심장이 멎는다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그 시계가 순간이나마 멎었다는것은 일군들에게서 인민복무의 관점과 립장이 영영 사라진것과 같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일군의 가슴속에

서는 순간도 쉬지 않고 돌고도는 시계바늘처럼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리라는 결의가 굳게 새겨졌다.

□ 세 이삭의 강냉이

어느해 가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로부터 한 농장에서 따온 세 이삭의 강냉이를 받아들게 되시였다.

그 농장 강냉이밭의 작황이 하도 좋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리려고 따온 강냉이였다.

방치같이 여문 강냉이이삭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면서 강냉이이삭들이 하나같이 탐스럽다고, 온 나라의 농사작황이 다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더 잘 지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때문에 더는 걱정하시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물으시였다. 강냉이를 가져오면서 값은 물었는가고.

강냉이를 따온 당사자들중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강냉이 세 이삭쯤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밭에 있던 농장원들에게서 허락을 받고 가져왔던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원들

의 승인을 받고 따왔다고 하지만 승인을 받고 안 받은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냉이가 비록 세 이삭이지만 그것도 인민의 재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말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뇌리에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한 농장원에게 참외값을 물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길가의 과일매대를 보시고 좀 보고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차를 세우시였다.

일군들이 나이지숙한 농장원을 데려왔는데 그는 주변의 과수밭을 보면서 겸사해서 과일판매도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 과일이 잘되였는가 물으시고나서 과일밭가까이에 과일매대를 차려놓은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고개길에 과일매대를 차려놓으니 오가는 길손들이 여기서 휴식하면서 과일을 사먹을수 있어 좋아하겠다고, 물론 협동농장에서 길가에 매대를 차려놓고 과일을 파는것은 별로 큰일로 되지는 않지만 인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때 농장원이 참외밭에 들어가 잘 익은 참외를 한다래끼 정히 따가지고 와서 맛을 보시라고 위대한 장군님앞에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외향기가 참 좋다고, 아바이의 성의가 고마운데 한개씩 맛을 보고 떠나자고 하시면서 참외

한알을 드시고 손수 깎으시였다.

이윽고 자리를 뜨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참외값을 치르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자 농장원이 펄쩍 뛰며 두손을 내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면 안된다고, 물론 우리가 맛본 참외의 값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농장원들이 품을 들여 가꾼 생산물인것만큼 값을 치르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는수없이 참외값을 받아쥔 농장원은 감격에 두눈을 슴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은 정말 순박하고 인심이 좋다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살림이 가난하여도 지나가던 손님이 자기 집에서 하루밤 묵게 되면 정성을 다해 대접시켜 보내였다고 하시면서 농장원에게 참외를 잘 먹고 간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

인민들이 올리는 자그마한 성의마저 마다하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만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돌이켜볼수록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또 한분의 인민의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긍지가 세차게 끓어넘치였다.

강냉이 세 이삭.

비록 많지는 않아도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것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세 이삭의 강냉이를 놓고도 일군

들에게 나라의 재산, 인민의 재산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신것이였다.

□ 멜끈에 깃든 사연

주체106(2017)년 1월초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첫 현지지도로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왔는데 올해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하신 말씀은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제품견본실 앞복도 벽면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견본실에서 소학교 녀학생멜가방을 보아주시는 사진문헌을 보아주시였다.

그 사진문헌으로 말하면 몇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멜끈이 얇은 가방을 몸소 메보시며 아이들이 가방에 책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 어깨가 아플수 있다고, 그래서 멜끈에 해면을 넣어주도록 하신 숭고한 영상을 모신것이였다.

사진을 보시며 그때의 일을 추억하시듯 한동안 사이를 두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런데 해면을 멜끈의 어깨닿는 부분에만 넣어준것이 아니라 아래부분에까지 다 넣어주었다고, 해면을 멜끈의 아래부분에까지 다 넣어준다고 하여 좋은것이 아니라고, 멜끈의 아래부분에까지 해면을 넣어주면

손이 작은 아이들이 멜끈을 잡기도 불편하고 아까운 자재만 랑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지배인의 기쁨은 이를데없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멜끈이 원만하지 못한 원인은!

사실 그는 어떻게 하나 가방을 아이들의 나이별 심리적 특성에 맞게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굴리고 짜내여보았으나 퍽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나오지 않아 머리를 앓고있었다.

200여가지의 가방견본들도 만들어보았으나 무엇이 모자란다는 생각은 가셔지지 않았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벽두에 오시여 몸소 묘안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지배인은 그이를 따라걸으며 나는듯 한 기분이였다.

가방을 생산하는 재봉작업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보시며 멜끈을 하나 만들어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정성을 담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놓았다.

가방전체를 놓고볼 때 멜끈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부분품이다.

눈에 잘 띄우지 않는 그 부분품에까지 어머니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그의 귀전에는 공장에 도착하시여 지배인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예로부터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자신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 동무는 학생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을 다 담아 질좋게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이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리여왔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결코 자재나 실력, 경험이 부족한것이 아니였다.

자기들에게 부족한것은 바로 그 정이였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 결국은 온 나라 어머니들의 그 심정을 다 담지 못한탓에 더 훌륭한 가방이 쾅쾅 나오지 못하였던것이다.

지배인은 크지 않은 책가방의 멜끈을 두고 생각이 깊었다. 그리고 멜끈에 깃든 감동깊은 사연을 아이들에게, 인민들에게 전하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 자신께서 만세를 부르겠다시며

풍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룡악산기슭에 훌륭히 일떠선 룡악산비누공장.

주체105(2016)년 10월 어느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창고에 공장에서 생산한 물비누들을 넣은 지함들이 그득히 쌓여있는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질좋은 물비누를 쓰면서 좋아할것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삽시에 풀리는것 같다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실 때 공장일군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는듯 하였다.

몇달전 험한 여기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당창건기념일까지 공장건설을 끝내고 우리 인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고 절절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앞당겨 관철하고 생산까지 시작한데다가 그이께서 또 이렇게 찾아오시였으니 그 기쁨이 더 컸던것이다.

공장일군들은 저저마다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넘친 자기들의 심정을 아뢰였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고급한 물비누들을 마음껏 쓰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물비누를 써본 사람

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장일군들의 어깨는 저도 모르게 으쓱해졌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동행한 일군들에게 그 말들을 귀담아듣지 말라고 이르시였다.

모두가 정숙하고 긴장되였다. 공장일군들은 당황해났다.

그러는 그들을 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동무들이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인민들이 쓰고 남을만큼 물비누를 꽝꽝 생산해내면 그때 자신께서 만세를 부르겠다고 참으로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원료,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비누를 쓰고 남을만큼 꽝꽝 생산하라!

공장일군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시작에 불과한 성과에 자만하여 만세를 부르려고 한 자책감때문이였다.

공장을 돌아보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자신께서 준 과업을 무조건 집행하여 물비누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는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다시 강조하지만 물비누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기본핵은 원료의 국산화이라고, 룡악산비누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물비누들을 꽝꽝 생산할 때 만세를 불

려야 한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이 그이께 공장연구사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물비누공업의 주체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주체화가 실현된 공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꼭 다시 모시겠다고 힘있게 말씀올렸다.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승용차에 오르시려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좋다고, 원료의 국산화가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면 자신께서 만세를 부르겠다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공장을 떠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래워드리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면 만세를 부르겠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큰 진폭을 가지고 울리고있었다.

□ 헤아려보신 교육자의 고심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층 계단에 오르시려다말고 계단바닥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매 계단층마다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걷는 방향을 쉽게 알수 있게 하는 어린이발바닥모양이 유표하게 그려져있었다.

그 어린이발바닥모양이 생기기까지에는 사연이 있었다.

유치원을 한창 꾸릴 때 발바닥그림을 보고 조잡하다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었다.

그러나 그것을 착상한 유치원의 일군은 그것을 오히려 걸음길위치를 가르쳐주기 위한 유치원아이들의 교육에 꼭 맞는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시선을 주신 곳에 눈길을 박은 유치원일군은 그이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가 하는 생각으로 긴장해있었다.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발바닥모양이 정말 신통하다고, 착상이 기발하다고 하시며 유치원일군에게서 이슥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일군의 마음은 뜨거워났다.

흔히 유치원시기의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동적인 성미를 가지고있다.

장난꾸러기시절의 자유분방한 동심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의 그 동심에 맞는 교양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발바닥그림을 착상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니 이전에는 여러번 일깨워주어도 제 마음대로 마구 다니던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오른쪽통행을 꼭꼭 하였다. 결국 발바닥모양의 통행표식이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강조하던 교양원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놓으니 어린이들에게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들이 이 표식

물을 밟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우측통행질서를 저절로 지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지킬데 대한 교양을 자연스럽게 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저희들의 소행이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일군에게서 저도 모르게 격정에 넘친 목소리가 연방 터져나왔다.

계단마다에 자그마한 발바닥그림을 그리기까지에 비낀 교육자의 고심, 유치원일군의 자그마한 수고를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교육자, 교양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유치원일군의 진정에 넘친 심장의 토로였다.

□ 사회주의대가정의 가족사진

주체107(2018)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원도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날은 숨막힐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던 날이였다.

소문도 없이 양묘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도와 양묘장의 일군들은 형언할수 없는 격정에 목메이였다. 례년에 없이 고온이 지속되는 삼복철에도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로고가 가슴에 미쳐와서였다.

하지만 겹쌓인 피로와 무더위를 다 잊으신듯 양묘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드넓은 부지에 규모있게 자리잡은 산뜻하고 특색있는 건물들과 드넓게 펼쳐진 포전들에서 푸르싱싱 자라는 나무모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도내 인민들의 애국헌신의 정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강원도양묘장을 자신께서 돌아본 다른 단위들보다 더 질적으로 건설하였다고, 건설기능공들을 양성하는데서 강원도가 기치를 들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양묘장은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일떠세운 애국심의 결과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그리며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온 도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나날이 감회깊이 되살아나고 그 진정을 그이께서 대번에 헤아려주신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워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묘목전시장으로 향하실 때였다.

그이의 현지지도를 몸가까이 따라서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웅심깊은 사랑, 소탈하신 풍모에 온넋이 끌린 양묘장의 녀성지배인이 북받쳐오르는 흥분을 걷잡지 못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종업원들의 소원을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속에 지배인을 바라보시며 종업원들이 지금 다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요일이여서 오후에 휴식을 하는 종업원들이 더러 있다는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속에 지배인은 그이께 종업원들이 3년동안 애타게 기다렸다고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떼를 쓰듯 하는 그의 절절한 눈빛에서 이곳 종업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읽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찍자고 하시고는 촬영조직을 하도록 이르시였다.

이어 묘목전시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묘장종업원들인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에도 들리시여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군사복무시절처럼 살며 일해나가라고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고 그들부부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제대군인부부를 량옆에 세우시고 벽에 걸어놓은 두벌의 군복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뵈옵게 된 녀성지배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욕심이 불쑥 솟아올랐다.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선뜻 나선

그는 종업원가족들이 양묘장일을 절반이나 맡아하고있는데 그들도 함께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해주시였으면 하는 절절한 심정을 또다시 아뢰이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자기 생각만 하는 지배인이 민망스러워서였다. 이제 종업원가족들까지 다 모이게 하자면 많은 시간을 지체하여야 하였던것이다.

지배인도 그제야 자기가 너무 외람된 청을 올렸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을 숙이고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가족들도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합편의시설까지 돌아보시고 밖에 나오시였을 때 일군들의 마음은 더더욱 초조해났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급해하는 일군들의 마음을 눅잦혀주시며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다 모일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려주시였다.

어느덧 한낮도 다 지나가고 어둠이 깃들어 촬영장에는 투광등까지 켜지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기념촬영장소로 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양묘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을 받아안게 된 크나큰 감격을 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종업원들이 기다리고있는데 사진촬영장에 빨리 가야 하

겠다고 재촉하시며 앞장에서 촬영장으로 향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밖에 잠간만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양묘장의 평범한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천금같은 시간을 바쳐가시며 오래도록 기다리시였건만 그들이 잠시라도 기다릴세라 그토록 다심히 마음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날의 기념사진은 이렇게 태여났다.

꼭같은 작업복을 가뜬히 차려입은 종업원들과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경황없이 달려나온 가족들, 소년단넥타이를 맨 학생들이며 밖에서 뛰여놀던 차림새를 한 장난군소년들과 유치원어린이들, 엄마품에 안긴 아기들 등 각이한 모습들이 보이는 류다른 기념사진.

참으로 그 기념사진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온 나라 인민이 그이의 한식솔로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뜻깊은 가족사진이였다.

□ 기쁨속에 불러주신 《물고기산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산업발전을 중요시하시며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자리잡고있는 수산기지들에 령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랑의 일화들을 남기시였다.

그가운데는 그이께서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에 오시였을 때의 일도 있다.

주체104(2015)년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머나먼 북변의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찾아주시였다.

예로부터 사람 못살 막바지골안이라 하여 석막, 돌로 지은 막들이 많아 석막이라 불리우던 북변의 인적드문 바다가에 대규모의 련어종어기지, 굴지의 양어기지가 훌륭히 일떠서게 된것이 그리도 만족하신듯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에게 종어장의 전변의 력사가 돌이켜지며 못 잊을 추억이 밀물쳐왔다.

이슥토록 종어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요란하오,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놓은것이 알리오, 잡도리가 다르다는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종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

보시면서 련어양어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일이며 바다련어양어를 실현해야 우리 나라가 양어가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칠색송어가 욱실거리는 야외양어못들과 새끼련어가 아글아글한 실내양어못들도 기쁨에 넘친 시선으로 즐거이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은 그야말로 물고기산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물고기산원!

사전에도 없는 이 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돌아보시면서 처음으로 쓰신 뜻도 깊고 사연도 뜨거운 표현이다.

종어장의 희한한 전변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비유하시는 그 말씀에 일군들의 마음은 삽시에 흥그러워졌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들의 가슴은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다.

인민들의 식탁을 보다 풍성하게 해줄 고급어족들이 욱실거리는 광경이 얼마나 흐뭇하시였으면 물고기산원이라는 류다른 부름을 종어장에 얹어주시랴.

언제인가는 련어양어를 기어이 성공시키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시면서 머나먼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눈시울을 적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물고기산원!

정녕 이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말이다.

□ 금방석과 바늘방석

주체107(2018)년 8월초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던 때여서 밤이라고는 하지만 바깥공기는 여전히 숨막힐듯 하였다.

그런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보아주시기 위해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날 낮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였건만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였던것이다.

먼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무궤도전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였다.

한폭의 그림같이 유정하게 안겨드는 무궤도전차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낮에 보아도 멋있고 밤에 보아도 멋있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려객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것이여서 더더욱 애착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를 모신 무궤도전차는 수도의 밤거리를 누비며 기운차게 달리였다.

인민들이 앉을 평범한 좌석에 자리를 잡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였다.

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이며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문화성과 질은 제대로 보장되였는가.

그 모든것을 료해하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반년전에 만든 무궤도전차보다 질이 월등하게 개선된것은 이 공장 로동자들을 비롯한 수도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각성하고 분발하여 달라붙었기때문이라고,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높은 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손으로 훌륭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구나 무궤도전차, 궤도전차라고 하면 려객수송을 위한 운수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크나큰것으로 간직되여있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기에,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자나깨나 마음쓰는분이시기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인민들이 앉게 될 금방석으로 여기시는 그이이시다.

금방석!

그 부름을 조용히 외워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면 볼수록 수도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열렬한 충정심과 높은 애국심이 깊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뻐스정류소에 서있는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심중을 터놓으시였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사람들이 뻐스정류소에서 전차를 기다리며 서있는 모습이 그이의 가슴속에 그리도 아프게 자리잡고있은줄 과연 누가 알았던가.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거창한 재부들을 끊임없이 마련해주시면서도 생활의 한 단면에 비낀 인민의 불편을 헤아려보시고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이시였으니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강

령이라고 하시며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생산에 커다란 심혈을 쏟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때로는 일군들의 안목도 틔워주시고 때로는 조립중에 있는 무궤도전차에도 오르시여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오늘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정녕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데서 혁명하는 멋,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또 하나의 금방석인것이다.

어느덧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은 끝났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오늘은 년중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에 몸을 싣고 웃음꽃을 활짝 피울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그이께서는 수도의 밤거리가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을 안은듯 달아올랐다.

령도자는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걸음을 끝없이 재촉하시고 인민은 그 진정에 떠받들려 만복의 금방석에 앉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

참으로 내 조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복받은 행운아들인가!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뼈에 새기고 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 한몸 다 바쳐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웠다.

□ 인민들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끝없이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 중심부에서 얼마 멀지 않은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새로 꾸려진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던 그이께서는 쟈크생산현장에 들리시였다.

보기에는 크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정같았지만 그것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크게 관심하시는 대상이였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생산설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쟈크 한해 생산량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대단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

하였다.

공장을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공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이시였다.

한 기대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성되여나오는 쟈크를 손에 드시고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쟈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쟈크의 형태와 색갈을 다양화, 다색화할데 대한 문제, 제품질제고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멜라민수지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하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현대적인 쟈크생산공정과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또 하나의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왜 그토록 자그마한 쟈크를 손에 드시고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셨는지, 왜 소박한 제품들을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였는지 다 알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인민들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

쟈크와 멜라민수지제품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얼마나 크게 자리잡고있었는가를 일군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쟈크와 수지제품.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보아오던 제품들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그 제품들은 인민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제품이였고 그 생산은 인민들을 위하여 꼭 하고싶으셨던 일이였으니 그렇듯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지닌 령도자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그이께서 쟈크생산공정을 돌아보신 이날은 일군들이 작고도 큰것을 알게 된 날, 이 땅에서 생산되는 인민소비품들의 무게를 더욱 절감하게 된 날이였다.

□ 명당자리

주체107(2018)년 7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날 경성군에 자리잡은 비행장도 찾으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시여 드넓은 비행장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명당자리!

이렇게 되뇌이며 도의 일군은 여름날 정오의 따가운 해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정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이를 격정속에 우러렀다. 그러는 그의 뇌리에는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랑천5호발전소를 돌아보시다가 문득 경성군에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을 통해 비행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불현듯 도의 책임일군에게 거기에 남새온실농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갑자기 하시는 물으심에 일군은 어리둥절하여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라고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더니 이미 있던 비행장을 내고 그 자리에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경북도인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고 다시금 정깊이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함경북도는 북부해양성기후인것으로 하여 다른 지대보다 남새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도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그의 마음속에는 청진시를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묵직이 매달려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하다한들 군용비행장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할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그때의 놀라움은 그의 마음속에서 쉽게 가셔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현지에 오게 된것이였다.

푸른 하늘아래 비행장이 아득히 펼쳐져있었다.

드넓은 대지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피력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계속하시여 일군들에게 이만한 면적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은 내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도의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며칠전 이 비행장의 면적을 알아보시면서 거기에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이 어떻겠는가 물으시고 또 지금은 비행장을 직접 돌아보시며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의 명당자리라고 기뻐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였다.

인민, 바로 인민때문이였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대용단도 서슴없이 내리시고 조국보위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장도 통채로 내여주시는것이 아니랴.

도의 일군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 결심을 굳히였다.

그는 그이를 우러르며 온실농장을 훌륭히 건설하여 도의 긴장한 남새문제를 꼭 풀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동행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정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기자

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여 함경북도에 넘겨주면 도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고 군민관계도 더욱 두터워질것이라고,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또 하나의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군용비행장을 통채로 내여주도록 하신것만도 눈물겹게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친히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훌륭히 건설하여 함경북도에 넘겨주도록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니 인민을 위해 베푸시는 열화같은 사랑의 끝은 정녕 어디인가.

사랑을 주시여도 온넋을 다해 정과 열을 깡그리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숭엄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울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군대가 비행장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잡아주신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의 명당자리, 드넓은 비행장이 그들의 눈가에 비껴들었다.

땅이 넓고 좋아서 명당자리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정이 깃든 대지여서 세세년년 인민의 만복이 꽃펴날 명당자리, 위대한 인민사랑의 명당자리였다.

□ 몸소 맛보신 온천물

주체107(2018)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흙먼지 날리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장일대를 주의깊게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동행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발걸음따라 얼마나 많은 창조물이 인민을 위해 펼쳐졌던가.

일군들에게는 또 하나의 온천문화휴양지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그이께서 여기 양덕땅을 무더운 삼복철에 찾으셨던 그

날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날은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여 숨쉬기조차 힘들던 때였다. 하지만 조국땅의 풍부한 온천들을 다양하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료도 하고 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문화휴양지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머나먼 밤길을 달리시여 양덕군을 찾으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여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자원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답게 위생문화적으로 온전하게 꾸려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료해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워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였기에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콸콸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지신듯 그리도 만족해하시였다.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속이였지만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종합려관을 건설할 위치도 몸소 잡아주시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며 개별온탕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봉

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

일군들이 감회속에 잠겨있는데 그이께서는 콸콸 소리를 내며 솟구치는 온천물을 보시고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뜨거운 온천물이 흰 김을 뭉게뭉게 피워올리며 쉬임없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온천물을 한동안 내려다보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건설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온천물을 맛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모두가 당황해하였다.

로천의 온천물을 어떻게 그이께 올린단 말인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소 온천물맛을 보아주시였다.

고뿌를 드시고 온천물맛을 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 기쁨이 넘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에게는 식료공장을 찾으시면 식료품의 맛을 보아주시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면 시운전하는 전차에도 오르시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원수님의 그 로고의 나날들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들을 안고계시는분이시기에 로천에 솟구치는 온천의 물맛도 스스럼없이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펑펑 솟구치는 온천물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앞으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차넘칠 인민의 기쁨을 안아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히 웃고계시였다.

□ 심금을 울린 박수소리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창성각도 찾으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주방에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 설비들을 옥류관과 청류관의 종업원들이 와보고 자기 식당들에 있는 설비들보다 낫다고 하였다는데 창성각의 주방설비들이 중앙의 식당들에 있는 설비보다 나은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고 2층에 있는 식사실에 들어서시여서는 전골과 불고기는 누구나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먼길을 달려오시며 쌓인 피로도 다 잊으신듯 그리도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를수록 일군의 가슴은 크나큰 행복감으로 한껏 높뛰였다.

하지만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한가지 아쉬움이 자리잡고있었음을 그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윽하여 1층에 있는 식사실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누구에게라 없이 지금 식사실들이 비여있는데 인민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도, 창성각 일군도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산골군인민들에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급양봉사기지를 마련해주시고도 그것을 리용하며 좋아하는 인민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서운함을 터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 즐거운 웃음소리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 말씀에 그대로 어려와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이때였다.

문득 군의 일군이 창성각에서 군안의 주민들에게 생일상과 결혼식상을 차려준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다는데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기다리신듯 그럼 어서 보자고 하시며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이어 일군이 펼쳐드린 사진첩을 마주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 인민들의 밝은 모습이 정깊게 안겨들었다.

전쟁로병부부와 세쌍둥이가 생일상을 받아안는 사진이며 창성군으로 탄원해온 교원부부의 결혼사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좋은 사진들이 많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며 전쟁로병부부의 여든번째 생일에 초청되여온 로병들이 모두 좋아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사진첩을 다 보아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싶은 생각에 창

성각 일군은 어려움도 다 잊고 그이께 창성각에서 식사한 군인민들이 좋은 글을 많이 남겼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무랍없는 제기를 쾌히 수락하시며 어서 읽어보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일군은 국제로인의 날에 창성각에서 봉사를 받은 한 로인이 쓴 감상문을 펼쳐들고 감정을 담아 읽어내려갔다.

《하늘에서 내렸나, 땅속에서 솟았나. 우리 창성땅에 창성각이 웬 말이냐.

옥류관은 알아도 창성각은 몰랐구나.》

로인이 남긴 글은 감상문이라기보다 즉흥시에 더 가까왔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감상문을 들을수록 일군들은 흥그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일군이 감상문을 다 읽고났을 때 참으로 가슴뜨거운 광경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박수를 크게 쳐주시는것이 아닌가.

한순간 놀라움에 싸였던 동행한 일군들도 그이를 따라 박수를 쳤다.

뜻밖의 요란한 박수갈채에 일군은 너무도 당황하고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라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고,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좋아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모든 사업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모두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평범한 로인의 감상문을 들으시고 어이하여 박수까지 쳐주시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음미해볼수록 그이께서 쳐주신 박수소리는 심금을 울리였다.

심금을 울린 박수소리.

거기에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었다.

산골군에서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가는 참된 봉사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정이 실려있었다.

창성각에 울린 그 박수소리는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세상에 전하여주는 메아리였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것을 바라시는 간곡한 당부였다.

□ 언제나 생각하신 섬사람들

장재도와 무도를 비롯한 륙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사는 군인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이 늘 사용하고있는 바다물정제기를 생명수를 낳는 기계라고 부르고있다.

생명수!

바로 이 생명수에도 섬사람들을 륙지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문명한 생활조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다.

바다물정제기가 제작되기까지

주체106(2017)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바다물정제기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로 나오시였다.

일군들의 마중을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오늘 국가과학원에서 만든 바다물정제기를 보자고 나왔다고, 군인생활에서 바다물을 정제하여 먹는물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섬구분대들에 나가보니 그들이 물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있는것만큼 바다물정제기를 많이 만들어 섬초소들과 해

안지대 구분대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바다물정제기가 설치된 1층홀에 들어서시였다.

그곳에서는 정제기가 씽씽 돌며 바다물을 정제하고있었다.

바다물정제기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존안에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희한한 보물을 발견하기라도 한듯 정제기를 주시하며 설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바다물정제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섬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것은 지난해 11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섬구분대를 현지시찰하러 가서 그곳 군인들이 먹는물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라고, 지금 섬과 해안지대에 위치한 구분대군인들이 물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하여 누구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섬에서 생활하는 군인들과 주민들의 물문제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시는가 하는 생각에 누구나 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바다물정제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 바치신 로고에 대해 감회깊이 회억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6년 11월 일군들에게 바다물정제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으며 3일후에는 내각총리에게 섬구분대 군인들의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물문제를 해결해주는것이라고 하시

면서 해당한 자료들을 내려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을 편성해주시고 연구사업과 설비제작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등 조건보장을 원만히 하도록 필요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무한히 고무된 과학자, 기술자들은 마침내 바다물정제기를 연구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

경애하는 그이를 따라걷는 동행한 일군들의 가슴에 불현듯 환희가 차고넘쳤다.

바다물정제기에서 쏟아져나오는 사랑의 생명수를 받아안고 덩실덩실 춤을 출 군인들과 섬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안겨와서였다.

너무도 기쁘시여 맛보신 정제한 바다물

경애하는 원수님께 과학원의 한 일군이 바다물정제기로부터 관을 통하여 정제물통에 물이 채워지는것을 가리켜드리며 지금 정제물이 나오고있다고 보고드리였다.

샘물처럼 맑고맑은 물이 쉴새없이 쏟아지고있었다.

그것을 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 다시금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얼마나 많은 날과 날을 이어가시며

섬사람들의 음료수문제를 푸시기 위해 로고를 바쳐오셨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정제물통의 수도꼭지를 틀어보신 다음 물맛을 좀 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이 정제물통안의 정제물을 고뿌에 담아 그이께 정중히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리고뿌를 받아드시고 스스럼없이 물을 드시였다. 그러시고는 국가과학원에서 만든 바다물정제기로 정제한 물맛을 보니 신덕샘물처럼 좋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환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또다시 물맛을 보고나시여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실지 바다물을 정제한 물이 옳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도 물맛을 한번씩 보라고 이르시였다.

(섬사람들의 먹는물문제가 풀린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거듭 물맛을 보시며 그처럼 만족해하시랴.)

일군들모두가 격정에 넘쳐 저마끔 정제물을 입가에 가져갔다.

제일먼저 맛본 한 일군이 정말 물맛이 좋다고 토로했다. 다른 일군들도 샘물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다.

그러는 속에 과학원의 일군이 정제물이 들어있는 물병과 룡악산샘물병을 같이 들고 그이께 보여드리며 정제물과 룡악산샘물의 맑음도가 같다고 아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이처럼 기쁘실것 같지 않으신듯 시종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였다.

□ 동해기슭에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이 땅우에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떠받들리여 솟아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이곳에 깃든 절세위인의 뜨거운 손길은 사람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것인가.

제일 기뻐하실 때

주체105(2016)년 12월이였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동해바다가의 문천시에 새로 개건되여 일떠선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그이를 맞이한 야영소는 커다란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야영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였으며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훌륭하게 꾸려진 야영소에서 맞이하게 되였으니 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도안의 인민들의 감격이 어찌 크

지 않을수 있으랴.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1각 현관앞으로 오시여 건물을 만족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강원도에서 원래 있던 야영소건물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도자체로 방대한 야영소개건공사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끝냈는데 정말 용타고 치하해주시였다.

도의 일군들, 야영소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저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을뿐이고 또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이께서 다 풀어주시여서 훌륭하게 완공된 야영소였다. 그런데 그 성과가 고스란히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높이 내세워주시다니.

동해의 찬 바다바람이 귀전을 스치여도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움으로 후더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더운 시선으로 도와 야영소의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강원도에서 소년단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아이들을 위한 과외생활기지가 또 하나 일떠선것이 너무 기뻐 이렇게 왔다고, 자신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섰을 때가 제일 기쁘다!

숭고한 후대관이 력력히 비껴있는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 모두를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했다.

(그렇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각들과 주변을 정겨운 시선으로 부감하시며 야영소의 전경은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이여서 경애하는 그이께는 그 모든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지는것이리라.

노래의 곡을 지은 작곡가의 이름까지도

나무를 많이 심어 야영소구내를 과수원화, 교재림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1각 현관으로 들어서시였다.

넓다란 현관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미술작품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깊은 감회속에 작품을 바라보시였다.

일군이 이 영상미술작품이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고 설명해드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해설을 들으시고 야영1각 현관홀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미술작품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를 잘 형상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 야영소일군이 이 주제의 노래를 지은 작가가 우리 강원도에 있다고, 원산학생소년회관 작가인데 **김일성**상계관인이라고 말씀드리였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곡은 누가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야영소일군들도, 동행한 일군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볼뿐이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김운룡동무가 작곡하였다고 하시면서 가사를 원산학생소년회관 작가가 지었다는데 그 노래는 곡도 좋고 가사도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흔히 사람들은 노래가사는 기억하고있어도 그 노래를 지은 작가나 작곡가의 이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가 세상에 나온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그 노래의 곡을 지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고계시였으니 일군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영상미술작품에서 시선을 떼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쪽잠으로 잠을 대신하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구가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더더욱 후더워났다.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후대사랑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삶

을 누리는 조선의 아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지켜주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영원히 지켜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아이들 노래를 창작한 오래전의 작곡가이름까지도 기억하고계시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세계속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밝을것입니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진심의 토로였다.

친히 교시날자까지 알려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에 들어오시였을 때였다.

누구에게라 없이 야영소의 창립날자에 대하여 물어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강원땅에 자기의 독특하고 고유한 얼굴을 가진 야영거점, 아이들의 궁전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마전호텔과 비슷한 건물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야영소를 당의 의도에 맞게 잘 꾸리자면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조직하겠는가 하는데 대한 견해부터 바로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야영생활은 학생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것을 실지 자기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볼뿐아니라 그것이 한생의 소중한 추

억으로 될수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야영생활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지만 야영생활은 새 세기의 교육학적요구와 높아진 문명수준의 요구에 맞게 야영생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배워주는데 모를 박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야영기간을 그처럼 중시하시고 야영생활조직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데 대해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감동이 더더욱 커진것은 그 다음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는 야영생들에게 부식물을 제대로 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루부식물공급기준을 정해주시였을뿐아니라 후방물자공급체계도 세워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영생 1인당 하루부식물공급기준을 규정해주시였는데 그 교시날자가 언제인가고 물으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전문 야영생활을 맡아보는 일군들조차도 함구무언이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야영소물자보장대책을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시고 직관판에 게시된 야영생 1인당 하루부식물공급기준을 가리키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직관판을 보니 야영생

1인당 하루부식물공급기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부식물공급기준을 정해주시면서 야영생들에게 부식물을 공급기준대로 먹여야 한다고 교시하신 날자는 1974년 11월 7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일군들모두가 놀라와 절로 눈을 크게 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전에 하신 교시날자를 정확히 알고계신것도 놀라왔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그이의 고결한 후대관을 두고 또한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하였다.

일군들이 격정에 넘쳐 설레이는데 그이의 간곡한 말씀은 계속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대로 소년단야영소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대로 야영생들에게 식량과 부식물을 우선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 연혁소개실의 직관판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직관판에 야영생 1인당 하루부식물공급기준은 밝혀져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여 정해졌다는것이 밝혀져있지 않는데 이 공급기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정해주시였다고, 직관판에 야영생 1인당 하루부식물공급기준만 써넣지 말고 그밑에 이 공급기준을 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날자를 밝혀놓아야 한다고, 일군들부터가 그것을 똑바로 알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여 야영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끝났으나 일군들의 심장속에선 보다 큰 메아리가 쿵쿵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충정다해 받들어갈 맹세의 메아리가.

새로 생겨난 걸그림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자도서열람실에서 나오시여 종합지식보급실로 걸음을 옮기실 때 야영소일군이 원수님께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가르쳐주신대로 여기 야영소에도 종합지식보급실을 새로 꾸렸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원래 종합지식보급실이 칸칸이 막혀있던것을 하나로 련결시켜놓았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종합지식보급실이 해양실, 미술실, 콤퓨터실, 등산실로 되여있다고 하는데 다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천금같은 시간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솟구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해양실에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해양실벽면에 그려놓은 직관물을 보시며 해양실벽면에 바다생물들의 이름과 생김새를 보여주는 직관물을 그려놓았는데 이런 직관물로는 바다생물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줄수 없다고, 바다생물들에 대하여 이름과 생김새나 보여주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물학적특성까지 밝혀 구체적으로 보여주자면 교편물을 직관화하지 말고 걸그림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며 해양실벽면에 그려놓은 솔피를 가리키시며 실례로 고래와 솔피라고 하면 그것이 동물인가 물고기인가, 학명은 어떻게 되여있는가, 어느 수역에서 사는가, 새끼를 낳는가 알을 낳는가,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도해식으로 걸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콤퓨터로 편집하면 바다생물들의 생물학적특성을 종합화, 집약화하여 도해를 잘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들의 얼굴에 환희의 감정이 차고넘쳤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대번에 손쉽게 가르쳐주시는 그이에 대한 매혹과 경모심이 절로 흘러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야영생들에게 폭넓고 깊이있는 해양지식을 주자면 이렇게 직관물을 만들어놓지 말고 콤퓨터로 편집한 바다생물들에 대한 도해를 인쇄하여 걸그림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걸그림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줄수 있게 세분화하여 만들수도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직관물은 탈색되면 수복해야 하므로 제대로 관리한다는것이 간단치 않다고, 수복작업은 미술가들이나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해양실이 교육학적측면에서 꾸려지지 못하고 건축학적측면에서 보기에나 좋게 꾸려졌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접하고나서야 일군들은 무엇이 잘못되였는지 해부학적으로 잘 알게 되였다. 그만큼 자책도 컸다.

그러는 속에 경애하는 그이의 지적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그이께서는 소년단야영소들에 해양실을 꾸리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해양지식을 배워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양실을 꾸리면서 아이들에게 바다생물들에 대한 지식을 깊이있게 배워주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것을 교육학적원리와 관점에서 고찰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양실이 제대로 꾸려지자면 조수력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는 해양국인것만큼 조수력과 풍력자원의 리용과 관련한 지식 특히 조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원리, 그 발전소들을 운영하는데서 앞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는것을 배워주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소일군들은 시야가 버쩍 트이여 세계가 한눈에 안겨드는것만 같았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해양실은 물론 온 야영소가 아이들에게 산지식을 주는 《배움의 전당》으로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였다.

그이께서 떠나가신 후 새로 생겨난 걸그림도해가 야영생들이 지식의 탑을 쌓아가는데 참으로 큰 도움을 주고있다.

생활조직은 아이들 심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생들이 식사할 종합식사실에 들리셨을 때였다.

내부를 둘러보시며 식사홀을 괜찮게 꾸렸다고 치하해주신 그이께서는 물은 어떻게 보장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야영소일군이 야영소에 상수뽐프장이 있는데 뽐프로 물탕크의 물을 퍼올려 보장한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문득 벽면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식사홀의 벽면에 TV가 설치되여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TV를 보시며 벽면에 TV를 설치한것은 잘못되였다고, 식당을 비롯한 사회의 일반 급양봉사망 식사홀에는 벽면에 TV를 설치할수 있지만 야영소 식사홀 벽면에 TV를 설치한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사시간이 정해져있는 야영생들이 TV도 볼래 밥도 먹을래 식사는 언제 하겠는가고, 식사홀 벽면에 TV를 설치한것은 완전히 형식이라고, 실리에 맞지 않는것은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식사홀 벽면에 설치한 TV는 치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소운영을 전문으로 한다는 우리가 과연 야영생들의 심리에 맞게 생활조직을 짜고들어 해왔던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야영소일군들은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아이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였다.

없어진 방파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야영소내부를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시였을 때였다.

시야에 눈부신 백사장이 눈뿌리가 모자라도록 펼쳐져있었다. 멀리 바다상공우에서는 오늘따라 많은 바다새들이 날아예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해수욕장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여기는 경치가 참 좋다고, 소년단야영소가 명당자리에 잡고있다고, 해수욕장이 멋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들도 희한하게 펼쳐진 백사장을 거닐며 아이들처럼 좋아라 술렁거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일군들에게 나라의 왕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할수 있는 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해수욕장에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졌으니 여름철에 야영오는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야영기간 야영생들이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깊은 감회에 잠겨있던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원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군사시설물인 방파제를 해체하도록 배려해주시여 이렇게 훌륭한 백사장이 생겨났습니다.》라고 정중히 아뢰였다.

그의 말에 동행한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하며 그이를 우러렀다. 처음 알게 된 사연이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께서는 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한다는 보고를 받고 야영소구역에 있는 중요군사시설물인 방파제를 해체하고 바다가에 백사장을 만들어주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을 위해 중요군사시설물 해체!

주위의 일군들이 숙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푸시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끝은 과연 그 어디인가. 끝도 기슭도 없는 고결한 후대사랑은 절세의 위인 **김정은**원수님의 천품이 아니던가.

일군들의 생각은 끝없이 나래쳐갔다. 끝간데 없이 펼쳐진 드넓은 바다처럼.

□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11월 동해기슭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사업소의 물고기생산량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한 일군의 고충을 아시게 되시였다.

그의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좋은 일이라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고 하시며 일군의 고충을 순간에 날려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일군은 얼굴이 환해졌다. 자기들은 애로로만 생각하고있었는데 그이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좋은 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사실 사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인가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이곳을 찾으시여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의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잡도록 하기 위해 몸소 세워주신 은정깊은 사업소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수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면서 원아들에게 공급할 수량도 정해주시였고 사업소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계획된 물고기잡이량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다.

그때가 생각되여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없는 아이들을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자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것이 아닌가고, 우리가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자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기념촬영장으로 가실 때에는 일군에게 동무가 앞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것 같다고,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원아들에게 공급해주자고 또다시 당부하시였다.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여!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일군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곧잘 외우면서도 원수님의 마음에 자신을 따라세우지 못한 자책감에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던것이다.

과업을 주시여도 되시련만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부모없는 자식들을 위해 물고기를 많이 잡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어떤 명령이나 과업보다 더 무거운것으로 일군의 마음에 새겨졌다.

□ 높이 평가하신 순결한 애국심

주체106(2017)년 9월이였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원들이 각이한 지역과 서로 다른 위치에서 떠나 평양으로, 평양으로 올라오게 되였다.

렬차길, 배길, 륙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원들을 손저어 바래며 그들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떤 교원들이며 왜 평양으로 올라오는것인가.

언제나 후대교육사업을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평양으로 올라오고있는것이였다.

평양에 올라온 수백명의 교원들은 여러날에 걸쳐 축하모임과 국가표창수여식, 선물전달식과 성대한 연회 등 여러 모임과 행사장들에서 최상의 환대와 은정을 받아안으며 뜻깊은 나날을 보내였다.

그러던 어느날 오후였다.

그들에게 뜻밖의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다는 것이였다.

그들이 모여선 기념촬영장은 뜨거운 격정과 환희의 분위

기에 휩싸여있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촬영장에 나오시는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촬영대에 서있는 교원들을 바라보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이들의 인생관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소개선전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촬영대로 걸음을 옮기시며 촬영대에 선 미더운 교육자들을 다시금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교원들의 눈가에서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들은 참다운 애국자들이라고, 이들은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결한 애국심!

애오라지 조국의 번영과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묻었을뿐인데 그것을 더없이 순결한 애국심으로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시니 이 세상에 이들처럼 크나큰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사회적으로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

고 이들의 고결한 인생관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신문,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키우는 애국사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교원들의 아름다운 소행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촬영대앞에 이르시였을 때 일군이 맨 앞줄에 서있는 여러명의 교육자들을 차례로 가리켜드리며 소개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학생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교원들은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교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또다시 터치며 경애하는 원수님곁으로 막 달려가 안기였다.

저저마다 그이를 에워싸고 존귀하신 영상을 좀더 가까이에서 뵙겠다고, 한번만이라도 그이의 손을 잡아보겠다고 어린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는 교원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며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그 화폭은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에 오가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 절절한 그리움이 펼친 력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이였다.

□ 인민의 마음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 먼저 들리신 곳은 이불생산현장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이불생산기지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당의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이것은 최근에 자신께서 많이 느끼고있는 문제이라고,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공업정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의 마음!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그 어떤 창조물을 하나 일떠세우시여도 인민의 마음부터 생각하시며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과 편의에 복종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뇌리를 세차게 뒤흔들어놓았다.

인민의 마음, 바로 이것을 떠나 그 무엇에 대해 생각하랴.

경공업분야는 물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모든 일의 성과여부가 인민의 마음과 잇닿아있지 않는가.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억년바위에 쪼아박듯 심장에 새

기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계속하여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누구도 우리 당 경공업정책이 옳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 경공업공장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

시종 인민의 마음을 화제의 중심에 두시고 생산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피력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사고와 실천의 강령적인 지침이였다.

이불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을 세심히 살펴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팔리지 않고 인민들이 찾지 않는다고 하여 생산을 걷어치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인민들의 마음에 드는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먼저 찾게 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인민의 마음!

저희들도 그 인민의 마음을 안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대전에 헌신분투하겠습니다.)

일군들모두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다지는 굳은 맹세였다.

2

오늘 이 땅우에는 장구한 력사의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문명국에 맞는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방방곡곡의 공장과 농어촌, 체육문화후생시설들이 자기의 모습을 눈부시게 일신하였다.

세계가 경탄하는 이 기적적인 전변은 불같은 열정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상한 창조의 손길과 잇닿아있다.

□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시에서

현대문명이 응축된 세상에 둘도 없는 특색있는 산간도시로,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시로 꾸려지고있는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시.

평양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주체106(2017)년 12월의 백두산기슭은 그야말로 엄동설한이였다.

바로 이러한 혹한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당시)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새로 개건된 읍(당시) 려관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려관일군의 인사를 받으시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계단에 오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시였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있었는데 려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도시의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대리석을 려관의 바닥에 일매지게 깐것을 려관의 자랑으로 자부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뒤따르고있는 일군들에게 바닥에 깔아놓은 대리석을 가리키시며 삼지연읍 려관출입문바닥을 대리석으로 마감하였는데 그우에 스키장들에 깔아놓은것과 같은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고 보기에도 좋았으며 현관이 급이 있어보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삼지연군에는 눈이 많이 내리므로 출입문바닥에 고무깔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려관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수 있다고, 이런데서 넘어지면 상하게 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화려한 대리석바닥우에 왜 고무깔판을 깔아주라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되였다.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줄번 하였는가.)

일군들모두의 자책이였다.

달라진 오락실의 위치

려관의 2층복도를 따라걸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락실이라고 써붙인 방으로 들어서시였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시여 내부를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서둘러 출입문앞으로 다시 나오시였다.

일군들이 의아해하며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입문에 붙인 오락실간판을 만져보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오락실을 려관 2층 한쪽의 구석진 곳에 꾸려놓은것은 잘못되였다고, 오락실을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꾸렸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청사복도 한끝에 탁과 의자를 가져다놓고 그우에 콤퓨터를 놓는 식으로 꾸려놓았기때문에 과학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있지 않다고 지적한적이 있는데 오락실을 이런 곳에 꾸린것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오락실을 이런데 배치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구석진 곳에 오락실을 배치하였으니 누가 여기에 찾아오겠는가고 하시면서 오락실이 너무 폐쇄되여있으니 여느 사람들은 올것 같지 않다고, 오락실이 전자오락실이라면 아이들이라도 올수 있겠는데 누가 장기나 꼬니를 두겠다고 여기에 오겠는가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주위는 조용했으나 일군들의 심장은 높뛰였다. 너무도 명백한 말씀이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오락실을 복도중심부에 있는 호실을 내고 거기에 꾸리든지 하여야 한다고, 오락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눈에 잘 띄우는 곳에 꾸려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에 들려 휴식도 할겸 오락을 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깊은 자책에 잠겼다. 그이께 만족을 드릴줄 알았던 오락실도 그 위치를 잘 정하지 못해 지적을 받고보니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관에 천만분의 하나도 따라서지 못하는 자기들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이의 세심한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락실에서 나오시다가 출입문틀을 량손으로 잡으시고 오락실에 출입문을 달아놓은것은 상식이 없는 표현이라고, 여기에는 출입문을 달지 말고 누구나 들어와 오락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락실에는 출입문을 달아줄것이 아니라 개구를 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의 심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 얼마나 세심하신분이신가. 우리는 언제면 그 숭고한 뜻을 천만분의 하나라도 따를수 있을가.)

수도물이 24시간 나오게 해야 한다

사진관으로 가보자고 하시며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중에 손님들이 드는 210호실로 들어가시였다.

려관일군이 방출입문을 열어드리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방을 보지 않고 위생실을 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위생실에 들어가시여 물탕크를 보신 다음 위생실안을 둘러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려관일군에게 물을 탕크에 받아놓고 리용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물을 탕크에 받아서 리용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생실에 물탕크를 만들어놓은것을 보니 려관에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군에게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수도물은 시간제로 나온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치솔질을 할 때 탕크물을 퍼서 하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그 누구도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려관에 든 손님들이 물을 쓰자면 물탕크에 받아놓은것을 써야 한다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양치질을 그런 물로 하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삼지연읍지구의 물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일군들이 삼지연군꾸리기를 하는것을 보면 건물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할 생각만 하지 실지 읍주민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물문제를 푸는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손으로 퇴수관을 형상해보이시며 퇴수관으로는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가야 냄새가 올라오지 않겠는데 탕크물을 몇번 퍼서 붓는 식으로 하니 냄새가 어떻게 올라오지 않겠는가고, 물을 탕크에 받아 사용하면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장내에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적는 펜소리만이 조용히

울리였다.

군의 한 일군이 그이께 지금 군에서 자연수에 의한 상수도공사를 진척시키고있다고 보고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 수긍하시며 앞으로 읍지구건설 총계획에 따라 이 지구가 확장되는데 그에 맞게 소요되는 물량을 타산해보고 상수도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인입하여 어떻게 하나 삼지연읍지구의 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읍지구의 물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 수도물이 24시간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수도물이 24시간 나오게!

언제나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은정속에 삼지연시내의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에서는 하루 24시간 수도물이 쏟아져나와 인민들의 윤택한 생활에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상점에는 통창을 내야 한다

려관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곳은 종합상점이였다.

종합상점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상점건물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상점

을 어디에 꾸리는것이 거리형성에서 건축면적을 절약할수 있고 인민들이 리용하기도 편리하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나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의 창문크기에 대해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읍종합상점의 바깥벽에 자그마한 창문을 여러개 달았는데 원래 상점의 바깥벽에는 통창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점안의 매대들에 진렬한 상품들을 밖에서 들여다볼수 있게 바깥벽에 통창을 하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그렇게 하면 상점안의 온도보장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을수 있지만 상업망이라는것이 인차 알려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1층홀에 들어서시여 상품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일용품매대에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용품매대를 복도식으로 꾸렸는데 1970년대의 매대와 같은 형식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다층살림집 기단층에 꾸린 상점이라면 몰라도 독립적으로 꾸린 상점인 경우에는 넓은 공간에 구획별로 매대들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그사이를 돌아다니며 상품들을 직접 보고 살수 있게 꾸려야 한다고, 우리 사람들은 백화점만 그렇게 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종합상점도 그렇게 꾸리는것이 좋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의 실례까지 들어가시며 말씀하신 다음 매대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들을 눈여겨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다가 여기에 오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면서 매대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많으니 기분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도 그이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린것으로 하여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윽하여 가방매대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문을 바라보시며 상점창문에 창가림을 하였는데 없애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여 상점밖에서 매대에 진렬한 상품들이 환히 들여다보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모든것을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의 중심에서 생각하시고 실천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오늘 종합상점에는 보기에도 시원한 통창들이 생겨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있다.

알려주신 유리진렬장의 용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섬유잡화, 신발매대에 들리셨을 때였다.

상점일군이 모자와 귀마개, 겨울용솜장화 진렬장을 가리켜드리며 그이께 우리 군에서 생산한 제품들과 도에서 생산한 신발들이라고 설명해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며 시선을 유리진렬장에 주시였

다. 진렬장안에는 아동용장화가 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아동용장화를 가리키시며 섬유, 신발매대의 유리진렬장에 아동장화를 진렬하였는데 장화 같은것은 유리진렬장에 진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유리진렬장에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가면 마사지기 쉬운 상품이나 시계, 목걸이, 반지 같은 값진 귀중품들을 진렬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다른 나라에서 유리진렬장을 어떻게 리용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려주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매대들에 유리진렬장을 만들어놓는것은 좋지만 거기에 장화 같은것을 넣어 진렬하면 안된다는데 대하여, 상품진렬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상업부문 일군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여러 매대를 돌아보시고 1층홀에서 나오시여 유리진렬장에 넣은 음료들을 보실 때였다.

그것들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음료매대에 있는 유리진렬장에도 배단물 같은 음료들을 진렬하였는데 이런것은 립식랭진렬장에 진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진렬장을 리용할줄 모르는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상점일군들은 물론 군일군들도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크지 않은 종합상점의 진렬장 하나에 대해서도 상식조차 못 가지고있는 자기들을 두고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상점을 보다 문명하게, 보다 편리하게 꾸릴 결심을 가다듬으며 그이를 따라 힘있게 걸음을 옮겼다.

□ 깨우쳐주신 과학자들의 연구방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평양버섯공장을 찾으신것은 주체106(2017)년 4월 어느날이였다.

훌륭한 생산조건을 갖추고 조업식을 한지도 퍼그나 시일이 흘렀지만 아직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 나오신 그이이시였다.

여러가지 버섯을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느타리버섯재배장에 이르시였을 때 일군들에게 느타리버섯기질이 잡균에 오염되여 느타리버섯이 다 죽는 원인을 찾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발효공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확립한 재배공정이기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과학자들이 오염원인을 찾고있다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벼짚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완성하자면 실패원인을 빨리 규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에는 실패원인이 무균화가 보장되여야 할 생산현장에 사람들이 무질서하

게 드나드는데 있는것 같다고, 기질이 오염되는것을 막자면 생산공정에 대한 소독사업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무균화가 보장되여야 할 생산현장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위에 있던 공장일군들과 버섯전문가들의 머리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것이 있었다. 사실 새롭게 확립한 재배공정이여서 조작방법이나 발효공정상에 이상이 생긴데 실패원인이 있을것 같아 그 해명에 정력을 쏟아온 그들이였다.

그런데 그이의 가르치심에 접하고보니 원인은 거기에 있는것 같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위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벼짚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의 실패원인을 찾자면 소규모적인 실험실적방법으로 버섯생산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느타리버섯재배에 유리한 표준생태환경, 위생환경이 보장된 소규모적인 시험생산공정에서 버섯을 생산해보고 성공하면 지금의 생산공정에서 멸균화, 무균화가 아직 빈약하다는 문제가 하나 밝혀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이런 방법으로 실패원인을 빨리 규명한 다음 공업화를 하자면 어떤 생산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고 무균화는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사람들이 생산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 발효공정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방법을 성공시키면 버섯생산의 공업화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버섯공장에서 벼짚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에 의한 느타리버섯생산의 공업화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높은 산마루에 올라선듯 한 기분이였다. 앞이 탁 트이여 사방이 너무도 잘 보이는것 같았다.

그이께서 공장을 떠나가신 후 공장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대로 새롭게 일을 해나갔다. 그 과정에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비범한 예지를 지니고계시는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 인민들이 리용하는 약수 하나에도

예로부터 치료폭이 넓고 그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한 강서약수.

지하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 약수에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명한 생활을 위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는 절세위인의 자애로운 자욱자욱이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신 때는 주체106(2017)년 6월 어느날이였다.

공장의 여러곳에서 약수생산실태와 약수운반, 종업원들

의 출퇴근과 공장창립절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어 혁명사적교양실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종업원들에게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의 한쪽벽면에 게시한 전시물들을 보실 때였다.

공장일군이 벽면에 게시한 자료들을 가리켜드리며 그이께 여기에는 일본의 후꾸시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하여 솟구치던 약수가 멎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약수를 다시 찾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다시 찾은 자료들이 게시되여있다고 설명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설명을 들으시고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10년 11월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시고 공장에서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강서약수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그후에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귀중한 자금을 내려보내주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2011년 3월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영향으로 강서약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에는 강서약수를 어떻게 하나 다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연구집단과 탐사력량을 보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에게는 사연도 많은 그 나날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오늘과 같이 질좋은 약수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랴싶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장주변에서 약수가 나오는 곳을 다시 찾았으며 그 약수가 종전의 약수보다 용출량도 많고 탄산가스함유량도 더 많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화가 복이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그해 8월 《로동신문》에는 강서약수를 다시 찾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에 대한 혁명일화 《다시 찾은 강서약수》가 실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리용할 강서약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하시였으면 그처럼 오래전의 일, 그것도 신문에 난 혁명일화의 제목과 날자까지 기억하고계시랴.

너무도 가슴벅찬 사실에 접하여 흥분에 젖어있던 공장일군이 벽면에 게시되여있는 2011년 8월 12일부 《로동신문》을 가리켜드리며 《경애하는 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강서약수>라는 혁명일화도 생겨났습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공장일군들도, 동행한 일군들도 그이를 경건히 우러르며 걸음을 옮겼다.

참으로 비범출중하신 절세위인의 발걸음을 따르며.

□ 《세 친구》의 등장

나라의 방방곡곡에 자리잡고있는 상점들의 양말매대들에서 몇년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끄는 아동양말을 팔고있다.

그것이 공화국의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에서 나오는 세 친구인 너구리와 야웅이, 곰이 새겨진 아동양말이다.

이 《세 친구》가 아동양말에 등장하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주체103(2014)년 8월 어느날이였다.

아침일찍 출근하여 하루사업계획을 토론하는 평양양말공장 일군의 얼굴에서는 노상 웃음이 사라질줄을 몰랐다.

그것은 요즈음 아동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이만저만 아니였기때문이였다.

이때 한 일군이 급히 달려오더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 오신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그는 너무도 기뻐 한달음에 달려나가 그이를 모실 준비를 서두르려고 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벌써 공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나서 생산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현장에 이어 제품견본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아동양말

전시대에 이르시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거기에는 수십가지의 만화그림들이 새겨진 아동양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던것이다.

이윽토록 제품견본들을 둘러보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양말견본들을 보니 동물무늬를 새긴 아동양말들이 많다고, 곱게 잘 새겼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치하에 일군의 어깨가 하늘에 닿는듯 하였다.

그런데 잠시 외국만화영화에서 나오는 곰이 새겨진 아동양말 한컬레를 드시고 당겨도 보시며 제품의 질을 가늠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동양말에 우리 나라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형상한 무늬들을 새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는것이였다.

공장의 일군은 머리를 숙였다.

솔직히 아동양말에 수십가지의 그림이 새겨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공장에 온지도 여러해가 잘되였지만 양말공업에 대해서는 깜깜이라고 하면서 생산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하던 그에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그림을 양말에 새길데 대하여 가르쳐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만화영화의 동물들이 새겨진 아동양말이 나오게 되였지만 조국에서 창작된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을 새길데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시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말씀을 하시였건만 나는 아직…)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것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있었다.

자신을 돌이켜보며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를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에서 나오는 너구리와 야웅이, 곰 같은 세 친구를 형상한 무늬를 새기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아이들의 웃음을 그려보시는듯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속에 그 무엇인가 끝없이 메아리쳐오고있었다.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그들을 우리의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도록 키우는것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그이의 고결한 후대사랑의 철리가.

□ 우리 글로 써붙이라

우리의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하지 않는 자그마한 표현 하나에도 잇닿아있다.

주체102(2013)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릉라인민유원지에 새로 꾸려진 전자오락관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경마오락설비와 판스키경주오락설비, 3D비행전오락설비, 오토바이경주오락설비 등 여러 전자오락설비들을 만족하게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해적해상전투오락설비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설비의 옆면에 《CAUTION!》이라고 영어로 써붙인것을 가리키시며 이 글자가 《주의!》라는 글자가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중한 안색으로 이번에는 해적해상전투오락설비옆에 있는 공중전오락설비를 살펴보시였다.

그 설비의 발판에도 《NO STEP!》라고 영어로 표기된 글이 붙어있었다.

잠시 오락설비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해적해상전투오락설비에는 영어로 《주의!》라고 써붙이고 공중전오락설비에는 《밟지 마시오!》라고 써붙이였는데 우리 글로 써붙여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였다.

사실 오락설비들에 써붙인 외국글자들은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크기가 작은것이였다.

그러다나니 그곳 일군들은 물론 매일 정상적으로 설비를 관리하는 성원들까지 거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우리 글로 써붙이라!

비록 길지 않은 말씀이였지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것은 우리의것, 우리의 글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는 일은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이기때문이였다.

□ 작고도 큰일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류경원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대동강반의 풍치와 어울리게 시원스러운 물결모양의 지붕을 떠이고 특색있게 일떠선 류경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 인민을 위한 건축물이 또 하나 마련된것은 그이께 있어서 더없는 만족이고 행복이였다.

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류경원안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방을 둘러보시였다.

은은한 색갈의 타일로 바닥과 벽면을 장식하고 기둥들사이의 공간도 예술감이 나게 처리한 류경원의 내부는 산뜻하고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건축미를 한껏 돋구고있었다.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는 흠잡을데 없이 훌륭하게 꾸려진 류경원에 대한 감탄의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런데 만족한 표정으로 홀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 언뜻 그늘이 비끼였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영문을 알수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을 보시며 복도벽에 붙인 1층안내판이 초라하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안내판을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결함이 무엇인지 잘 가늠이 가지 않았다.

일군들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내판을 손수 만져보시며 안내판을 액틀에 넣은것처럼 콤퓨터로 인쇄하여 수지도포하여 만들어붙이였는데 이렇게 요란하게 꾸린 류경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건물을 아무리 현대적으로 요란하게 꾸려놓았다고 하여도 안내판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사소한것들을 깐깐하게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 건물의 품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시고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벽에 붙여놓은 안내판을 가리키시며 2층안내판도 1층안내판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이 좋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안내판의 결함이 무엇인지 느낄수 있었다.

웅장한 건물에 비해볼 때 안내판의 결함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우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작고도 큰일이였다.

인민이 리용하는것,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흠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 옮겨지펴주신 불길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그이를 뜻밖에 발전소건설장에서 만나뵈옵게 된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차마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공사를 시작한지 퍼그나 오래지만 아직 발전소를 완공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늘 어랑천발전소건설실태와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현지에서 료해해보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후 발전소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위치까지 정해주시면서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차례나 찾으시였던 어랑천발전소건설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른 건설장들과는 달리 시대의 벅찬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언제건설장을 흐리신 안색으로 둘러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시려고 험한 진창길을 헤치시며 여기까지 오시였던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랑천발전소건

설을 다그쳐 끝내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

북방의 험한 골짜기, 아찔한 벼랑가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의 자욱을 마음속으로 더듬어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뼈아픈 자책감으로 끝없이 옥죄여들었다.

천리도 넘는 먼길을 오시여 진창을 밟으시면서 언제건설장을 돌아보시는 한걸음한걸음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무겁게 얹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제대로 내밀지 못한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제부터라도 이 발전소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총집중하여 공사를 와닥닥 끝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도 전당, 전국이 달라붙어 해제꼈다고, 어랑천발전소건설은 정치적의의로 보나 경제적효과성으로 보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못지 않은 중대한 대상건설이라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눈앞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웅장한 자태가 우렷이 떠올랐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참으로 이름만 외워보아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창한 창조물이였다.

그앞에 자기들이 건설하는 팔향언제를 마음속으로 세워보는 일군들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하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라는 이름을 거듭 외우시는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다만 어랑천발전소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못지 않은 중요대상이라는 생각에만 집착되여있었다.

그러한 일군들을 깨우쳐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힘있는 어조로 백두산밀에서 타오른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함경북도에 옮겨지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백두산밀에서 타오른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함경북도로!

정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단순히 전력생산기지가 아니였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운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본보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와닥닥 해제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때처럼 온 나라가 들썩하게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작전과 로력, 설비, 자재, 연유보장사업을 잘하여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어랑천발전소를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들가운데서 제일 현대적인 발전소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앞으로 남은 공사량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발전소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 얼마든지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천금보다 귀중한 고무와 산악도 단

숨에 들어올릴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받아안은 건설자들의 감격과 흥분이 어랑천전역에 세차게 파도쳤다.

불굴의 투쟁정신이 창조된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타오른 부강조국건설대전의 불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옮겨지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1년후인 2019년 12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팔향언제건설이 완공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밀에서 타오른 애국의 불길을 옮겨지펴주시여 어랑천전역에 활활 타오른 영웅신화창조의 불길.

이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만이 아닌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기적창조의 불씨, 비약의 나래로 되였다.

□ 촬영가의 자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신것은 주체103(2014)년 10월이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완공된 휴양소를 돌아보시기 위해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였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도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해하시

였다.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 건설한 과학자휴양소인가.

얼마나 많은 건설자들의 땀이 이 건축물에 슴배여있는 것인가.

그이께서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휴양소전경을 보고 또 보시였다.

울창한 수림속에 자기의 자태를 한껏 뽐내며 우뚝 솟아난 각이한 휴양각들과 봉사건물들, 시원하게 쭉 뻗어나간 특색있는 외랑…

그리고 과학자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하며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노래반주기재와 오락시설, 체육기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실내물놀이장과 리발실, 미용실, 식사실과 연회장 등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종합봉사소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종합봉사거점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종합봉사소의 봉사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용도야외운동장을 거쳐 훌륭히 꾸려진 휴양각 5호동에 이르시였다.

휴양각에 들어서시여 전실과 침실, 세면장 등을 보아주시면서도 거듭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대로 나오시여 종합봉사소건물과 휴양각들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건축형식이 멋있는데 대하여서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외랑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실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

는 외랑너머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곳에서는 멋들어진 휴양소의 풍경에 심취되여 몇명의 촬영가들이 사진을 찍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빨리 나오라고 급히 손짓하시였다.

순간 촬영가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하였다. 그러던 그들은 언듯 자기들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사진을 찍는데 정신을 팔다보니 그만 걸음길경계를 지은 턱을 넘어 잔디를 밟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의 얼굴에 심한 자책감이 어리였다.

(아, 여기가 어디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크나큰 로고를 바쳐 마련해주신 과학자들의 금방석이 아닌가.)

촬영가들은 휴양소의 풍치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줄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잔디밭밖으로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이라고,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정말 큰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깊이 새겨안았다.

□ 문이 달리게 된 사연

주체104(2015)년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은 끝이 없으시였다.

한것은 그곳이 식사실과 종합놀이장, 잠자는 방과 지능놀이실 등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어린이들의 황홀한 궁전이였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을 돌아보시였다.

이어 탈의실 앞복도를 지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낮은 문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걸음을 멈추며 그 문에 눈길을 돌렸다.

이때 애육원 원장이 전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이 문이 없었는데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인민군군인들이 이틀동안에 문을 설치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웃음이 절로 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그때의 일이 상기되시는듯 물놀이장 탈의실개구에 문을 달아주었는데 잘하였다고, 전번에 왔을 때 문이 없었다고, 이렇게 해주길 잘했다고 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때에야 일군들모두가 참아오던 웃음을 터치고야말았다. 그들에게는 그때의 일들이 어제런듯 방불히 떠올랐다.

원래 물놀이장의 탈의실에는 문이 없었다.

그러던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여서야 작은 문을 달게 되였다.

201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새로 건설한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시고 탈의실옆을 지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탈의실로 들어가는 개구를 가리키시며 실내물놀이장 탈의실로 들어가는 개구에 문이 없는데 문을 달아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동행하던 일군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렀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이 없으면 원아들이 옷을 갈아입는것이 들여다보여 좋지 않다고, 그러다 뭐가 다 보이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일군들도 모두가 크게 따라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이의 세심한 관찰력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들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시종 웃음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원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개구에 문을 달아주어 옷을 갈아입는것이 보이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원아들이 어려서부터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하는것도 알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원아들을 어릴적부터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례의도덕을 잘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에게 옳바른 도덕품성을 키워주어야 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탈의실의 작은 문.

일군들은 누구도 생각 못했던 그 작은 문이 어린이들의 도덕교양에 그토록 중요한것이였다는것을 늦게나마 더욱 똑똑히 절감하게 되였다.

□ 성공한 현대화는 어떤것인가

사람들은 현대화란 말을 많이 쓰고있다. 더우기 생산경영활동이 나날이 발전하여 경제의 과학화, 정보화, 지능화, 수자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더 흔히 쓰고있다.

그렇다면 현대화란 무엇인가. 성공한 현대화는 어떤것인가.

주체105(2016)년 7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어구들을 생산하는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 공장으로 말하면 그이께서 몇년전에 나라의 수산업은 물론 섬과 해안연선에 주둔하고있는 부대, 구분대들의 수산부업기지들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를 잡는 단위들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어구들을 마음먹은대로 쾅쾅 생산보장하는 종합적인 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따라 건설된 어구공장이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공장에 몸소 나오시여 생산조건이 보다 유리한 곳에 공장을 옮기고 생산능력에서 종전과 비할바 없이 큰 새 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 나와있던 평양콤퓨터기술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현대화공정을 맡아 도와주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하는 조선속도, 만리마의 질풍같은 속도로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공장의 종합조종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평양콤퓨터기술대학의 일군이 공장의 통합생산체계에 대하여 해설해드리였다.

그가 대학일군이라는것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지난해 이 공장을 돌아보고 통합생산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을 준 단위이라고 알려주시였다.

일군은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던 과정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보고드리면서 이제는 대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과업이든 다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확신에 찬 말을 들으시고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대형현시판에 통합생산체계 종합대면부가 현시된것을 보시고 원료공급기가 어떻게 동작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중앙조종실에서 내려보낸 하루공급량에 따라 자동수감요소를 통해 생산공정에 자동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도록 되여있다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원료를 조구통에 쏟아넣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자동계량되여 원료이송공급기를 통해 원료를 자동공급하니 로동자들이 좋아한다는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에 수긍해주시였다.

액정화면에 그물생산공정에서의 실끊어짐위치측정장치가 나타났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저 측정장치는 무엇을 측정하는 장치인가고 물으시였다.

실끊어짐위치측정장치라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떻게 측정하는가고 또 물으시였다.

일군은 실이 끊어진 위치에 레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검출하며 기대들은 실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멎는다고 대답올렸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로동자들이 기대가 멎으면 수십m씩 오고가며 실이 끊어진 위치를 륜곽적으로 찾느라고 정신적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지금은 레드가 표시한 위치에 가서 퇴치함으로써 이전에 비하여 생산량이 1.3배로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평양콤퓨터기술대학과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끊어짐위치측정장치와 자동원료이송공급기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으면 좋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 공장일군들이 실끊어짐위치측정장치가 정말 좋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이 저마다 자기 기대부터 도입해달라고 성화를 먹인다고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저저마다 공장현대화를 두고 자랑하는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들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화는 로동자들이 설비를 운영해보고 좋다고 평가하는것이 진짜 성공한 현대화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진짜 성공한 현대화!

일군들에게는 늘 들어오던 현대화란 말이 이 시각처럼 심원한 의미를 가지며 들려온적이 없었다. 긴 설명없이도 성공한 현대화에 대한 정의는 어떤것인가 하는것이 명백해졌다.

로동자들이 좋다고 평가해야 진짜 성공한 현대화라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는 숭고한 인민관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일군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단위들에서 현대화를 했다고 떠들면서도 실제로 로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평가해본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에 자책이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현대화를 하여도 로동자들이 좋다고 하는것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이께서 떠나가시였어도 일군들의 뇌리에는 로동자들이 좋다고 평가하는것이 진짜 성공한 현대화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깊이깊이 새겨졌다.

□ 물고기가 손에 묻어다니는 비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있은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그곳 지배인에게 올해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활기에 넘친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업소에서 올해에 물고기잡이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보시며 치하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저저마다 수산사업소가 생겨 처음 보는 물고기풍년이라고, 몇년전 완공된 이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원수님께서 여기 지배인은 손에 물고기가 묻어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이 동무가 새로 지배인으로 배치되여와 고기를 잡는것을 보니 정말 지배인의 손에 물고기가 묻어다니는것 같다고 자랑을 담아 아뢰였다.

지배인을 크게 내세워주고싶어하는 그들의 심정을 다 읽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다고, 싸움판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물고기도 잘 잡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아무나 지배인을 시킨다고 물고기를 잘 잡는것이 아니라고 정담아 말씀하시였다.

지배인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기가 한 일이 과연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겠는지 은근히 마음쓰게 되였다.

그는 그 마음을 안고 그이께 사업소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지배인동무는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인민군대에 입대한 후 예순이 지날 때까지 한생을 후방일군으로 일하였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수산부문에 대한 파악이 그리 깊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야 물고기가 손에 묻어다닌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는 지배인의 생각은 깊었다.

사실 그는 한생을 후방일군으로 사업하였어도 수산부문에는 초학도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수산사업소의 일군들보다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많이 잡기 위해 얼마나 고심해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이의 가르치심까지 받아안고보니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듯 하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해에 지배인동무가 새로 배치되여와서부터 이 사업소의 물고기잡이실적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그 말에 긍정하시며 올해 지배인이 새로 임명

되여와서부터 물고기잡이실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지배인이 일을 괜찮게 하는것 같다고 치하하시였다.

어느덧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멈춰서시며 지배인을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배인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수산부문 지식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도 많이 하고 물고기잡이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하시였다.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라!

그것이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과학적인 어로방법과 경영방법을 터득하자면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지배인은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눈앞이 탁 트이는것 같은 환희에 넘치였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는것.

이것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배인에게 다시금 가르쳐주신 물고기가 손에 묻어다니는 비결, 물고기잡이명안이였다.

□ 병원에는 전자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주체105(2016)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완공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의 내부를 돌아보실 때였다.

인민을 위하여 꼭 해주고싶으시였던 일이 풀린것이 대단히 만족하시여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류경안과종합병원에도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았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병원일군은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데 특별히 고심을 바친 병원종업원들의 노력을 더듬어보며 한껏 흥분된 마음으로 그이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병원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은 어리둥절해졌다.

그이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눈빛에서 심중을 읽으신듯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병원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의료일군들이 리용하게 하는것은 하나의 편향이라고 하시면서 그 리유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도록 한것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현장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병원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고 또 얼마나 교조적이였는가.

과학기술보급실이라는것은 말자체로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곳이다.

그러니 대학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배워가지고 졸업한 의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병원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것이 타당하다고 볼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있는 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병원들에는 의료일군들이 전문의학서적들과 새 의학과학기술자료들을 비롯한 참고자료들을 볼수 있게 전자도서실을 꾸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자도서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방안이 하도 신통하여 일군들은 탄성을 올리며 전자도서실이란 말을 처음 배우기라도 하는듯 되뇌이면서 입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실의 명판을 전자도서실로 바꾸고 그 사명에 맞게 자료들을 구축해놓으면 전자도서실을 꾸리는 문제가 쉽게 풀릴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는 일군들의 뇌리에 사색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각이 가슴아프게 갈마들었다.

□ 없어진 쏘세지생산장

주체105(2016)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내부를 둘러보시며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아주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이제는 앉은자리에서 최신자료들을 받아볼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는데 유독 한 일군만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원래 이곳은 과학기술보급실이 아니고 물고기쏘세지를 생산하는 곳이였다.

2015년 3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물고기쏘세지와 같은 식료품을 생산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여기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쏘세지생산장이 없어지고 그곳에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졌던것이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로 꾸려놓고 좋아하는 종업원들을 볼때마다 하마트면 자기때문에 세계적수준을 따라앞서려는 그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을번 했다는 자책감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던 일군이였다.

사실 그 일군은 쏘세지생산장을 운영하여 나오는 리윤으

로 공장도 더 현대적으로 꾸리고 종업원들의 생활수준도 높여주어 큰 실리를 얻으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했다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깨달았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면서 이제는 쏘세지생산장을 없애고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으니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일군은 좀전과는 다르게 자신심이 짙게 배인 목소리로 저는 이번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면서 과학의 힘이야말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는 비약의 길이며 실리를 얻을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말씀올렸다.

좁은 안목으로 몇푼의 리윤만을 먼저 보던 일군이 그이의 가르치심속에 오늘은 큰 실리를 볼줄 아는 능력있는 일군으로 되였다.

그후 공장경영활동이 더 잘되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이 차넘칠수록 일군은 공장에서 물고기쏘세지를 생산하는것보다 종업원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그들의 기능수준을 높여주는것이 더 실리가 있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군 한다.

□ 인재농사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이였다.

교육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삼지연군(당시)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군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한창 건설중에 있는 읍(당시)지구를 돌아보시며 그곳에 교육기관이 몇개나 있는가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동행한 도와 군의 일군들에게 도들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도들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많은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대교육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할수 있다고, 감자농사만 과학화, 집약화할것이 아니라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재농사!

참으로 심오한 뜻이 담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후대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재농사라는 단 한마디 표현으

로 통속화해 가르쳐주시고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신 그이의 말씀에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자면 온 나라에 인재농사열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고귀한 철리가 담겨져있기때문이였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후대교육사업을 천하지대본이라 일러오는 농사에 비유하여 통속적으로 말씀하신것은 비단 이때뿐이 아니였다.

일군들의 뇌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인가 인재농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뜻깊은 그날이 떠올랐다.

2015년 11월 어느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로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 생산지령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통합생산체계가 높은 수준에 이른것을 대번에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지배인에게 통합생산체계를 어느 단위에서 맡아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조종탁에 앉아있던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을 가리키며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이 선생이 책임지고 통합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고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강좌장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약국의 감초처럼 어디에 가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조종탁에 앉아 통합생산체계를 관리하고있는 공장의 기

술성원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이라는것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화, 정보화사업을 밀어줄뿐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주인이 될 전도양양한 청년지식인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앞으로 나라의 공업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인재농사를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모두의 가슴은 무한한 격동으로 설레였다.

봄내 여름내 씨앗을 묻고 땀흘려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듯이 인재도 품을 들여 하나하나 알차게 키워내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이 그야말로 금옥같은 명언으로 안겨왔던 것이다.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에 또다시 인재농사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게 된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후대교육사업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내 나라, 내 조국을 하루빨리 인재가 바다를 이룬 나라로 만드실 의지로 그 얼마나 심장을 불태우셨으면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그렇듯 간곡하게 당부하시랴.

농사는 한해를 내다보며 짓고 나무는 10년을 계획하고 심으며 인재는 100년을 내다보고 키운다는 말이 있다.

눈앞의 당면리익만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시며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후대교육사업을 그 무엇보다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이 비껴있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은 일군들의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울려주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온 나라에 인재농사열풍을 일으킬 때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 행복한 《고민거리》

물고기잡이를 전업으로 하는 어촌들이 제일 흥성일 때는 고기배들이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올 때일것이다. 오래동안 먼바다에 나갔던 남편이나 아버지를 맞이하는것도 풍어와 함께 할 때가 보다 기쁘고 감개무량한것이다.

그러나 한때 동해의 바다가들에서는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어는 가족들에게도 풍어와 함께 생긴 풀수 없는 한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포구마다에 차고넘치는 물고기가공처리문제였다.

주체105(2016)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그이를 맞이한 사업소는 환희와 감격으로 설레였다. 일군들은 물론 구내의 군데군데에서 물고기가공을 하고있던 녀인들도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림시로 만들어놓은 야외물고기받이장에 넘쳐나는 수백t의 물고기를 보시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그대로 물고기바다라고 높이 치하하시며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업소일군들의 《고민》은 사라질수가 없었다.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해 어로공들이 그토록 마음쓰는데 애써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라도 썩인다면 이보다 더 죄되는 일이 어데 있겠는가.

종업원들의 안해들까지 총동원하여 가공반의 로력을 늘였어도 날로 늘어나는 물고기가공량을 감당하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사업소일군들은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리며 《단풍》호들이 들어올 때면 기쁨보다도 먼저 번민속에 속을 태우군 하였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 마음속 고충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동무들이 지난 시기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여 고심하였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다나니 잡아들인 물고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고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즐겁게 따라웃었지만 사업소일군들은 죄스러움에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사업소의 일군이 그이께 만선의 《단풍》호들이 련속 들이닥칠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을 미처 못 차리겠다

고 말씀드렸다.

그의 솔직한 심정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에 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 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 혁명하는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쌓여있는 물고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러시며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지 못하여 가슴이 아팠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 이제는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것이 걱정스럽다고,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행복한 《고민거리》!

그이의 말씀에 동행한 일군들속에서 가벼운 웃음이 피여올랐지만 인차 사그라졌다. 그들의 고충이 느껴져 자기들도 안타까운 심정이 되여버렸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도와주겠다고, 사업소에 현대적인 초급동 및 랭동시설들을 더 갖추어놓고 가공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장내는 금시 밝아지는듯 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업소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겠으니 동무들은 그저 물고기만 짱짱 잡으라고 믿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사업소일군들 누구나가 다 정말 고맙다고 아뢰며 젖은 눈길로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렀다.

어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자기들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오늘은 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안타까와하는 자기들의 행복한 《고민》까지 말끔히 풀어주시는 그이앞에서 모두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하지만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야 그이의 어깨에 또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생각으로 자책감에 모대기였다.

□ 친히 달아주신 컵과 상장의 이름

주체105(2016)년 11월 어느날이였다.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어로공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사업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벽에 게시한 물고기잡이사회주의경쟁도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윽토록 경쟁도표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지금 진행되고있는 물고기잡이경쟁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물고기잡이경쟁이 한창이며 이번 물고기잡이경쟁에서 1등을 하겠다고 열의들이 대단하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지금 물고기잡이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있는데 경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것 같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물고기잡이경쟁요강을 만드느라 누구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 그였지만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고 곰곰히 생각해보았어도 새로운 방법이 어떤것이겠는지 짚이는데가 없었다.

그러는 일군의 심중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쟁에서 우승한 단위들에 우승컵과 상장을 제정하여 수여하면 어떻겠는가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승컵과 상장!)

순간 일군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우승컵과 상장이 나온 력사는 오래다. 허나 물고기를 잡는 어로공들에게 컵과 상장을 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사철 잡기 위해 투쟁해온 어로공들의 애국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컵과 상장까지 제정하여주신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절로 났다.

일군은 성수가 나서 그이께 그게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경쟁열의가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일군이 흥분하여 무릎을 치는데 그이께서는 재차 그의 생각에 불을 다시는듯 우승컵과 상장의 명칭을 어떻게 달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대답을 못했다. 동행한 일군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인민군대가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는 의미에서 《황금해》애국주의우승컵, 《황금해》애국주의상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환희에 넘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했을뿐인 어로공들의 수고를 애국이라는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공로로 빛내여주시다니…

정력적인 애국헌신의 장정으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열어주시고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도 어로공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애국으로 빛나는 컵과 상장까지 제정하여주시니 진정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과 은정을 무엇이라고 칭송하랴.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만지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황금해》애국주의상장과 《황금해》애국주의우승컵을 새로 제정하여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한 단위에 수여하여야 한다고, 《황금해》애국주의우승컵은 사회주의경쟁에서 3차례 우승한 수산사업소가 완전히 소유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월드컵경기대회에서도 3련승한 나라가 우승컵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는가고 하시며 호방하게 웃으시였다.

일군들도 따라웃었다.

웃음소리는 오래동안 끊길줄을 몰랐다.

사업소에, 아니 온 나라에 메아리쳐가는듯싶었다.

평범한 어로공들의 애국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온 나라에 전하려는듯.

□ 높지 않은 사다리 하나에도

오늘도 현대적으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 인민들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그칠새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의 웃음소리를 마음껏 터치면서도 자기들이 리용하고있는 물놀이기재에 어떤 사랑이 깃들어있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였을 때 물놀이장에서는 흥에 들뜬 일군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며 마치 아이들마냥 좋아하고있었다.

그들은 인민들이 물놀이장을 리용하기 전에 일군들이 먼저 봉사를 받아보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자고 그이께서 몸소 조직해주신데 따라 《특별봉사》를 받는 일군들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물놀이수조에 들어간 사람들모두가 좋아서 어쩔줄 모른다고, 앞으로 청소년학생들이 저렇게 좋아할 모습이 선히 안겨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철부지시절로 되돌아간듯 마음껏 즐기는 일군들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

놀이장관리운영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였다.

실내체육관을 거쳐 야외물놀이장의 급강하물미끄럼대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좋아라 소리치고 손까지 흔들며 미끄러져내리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누워서 미끄러지는 사람, 엎드린 자세로 미끄럼대를 타고 내리는 사람, 꼿꼿이 앉아 내려오는 사람, 눈을 꼭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채 미끄럼대에 몸을 맡긴 녀성들…

정말 볼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외물놀이장에서 제일 인기있는 기재는 급강하물미끄럼대인것 같다고, 여름철에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급강하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가운데 물미끄럼대주로 마지막까지 미끄러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즐기는 모양을 바라보는 정신에 그에는 전혀 눈길을 돌리지 못했던 일군들이 그이의 말씀을 듣고서야 미끄럼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정말 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온 사람마다 서로 다른 위치에 멈춰섰고 다음에는 주로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저마끔 바닥으로 뛰여내리고있었다.

급강하물미끄럼대주로는 약 60°가량 경사각을 이루다가 지면에 거의 내려와 수평으로 꺾이였는데 주로를 타고 내려

온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 미끄러지다가 몸무게에 따라 각이한 위치에 멈춰서게 된다.

몸이 무거우면 관성이 커서 주로끝까지 갈수 있었지만 몸이 가벼운 사람이나 녀인들은 중도에 멈춰지게 되니 그들은 물이 질벅하게 고인 바닥으로 뛰여내려 걸어서 나가게 되였다.

일군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눈길이 닿는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옆으로 내려올수 있게 수평부분의 중간에 사다리 같은것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일군들이 주로에서 뛰여내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

수평주로가 땅바닥으로부터 1㎙정도 높이에 설치되여있다나니 사람들은 거기에서 뛰여내려야 하였다.

단 한사람이라도 주로의 끝까지 미치지 못하고 도중에 뛰여내려야 하는 사소한 불편조차 가셔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은 일군들로 하여금 웃음을 거두게 하였다.

(우리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무엇때문인가?)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설 때마다 늘 느끼게 되는 이런 자책으로 또 한번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자신들을 비추어보았다.

며칠후 급강하물미끄럼대의 수평주로의 중간부분에는 자그마한 사다리가 생겨났다.

사다리는 비록 높지 않았다.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한계단, 한계단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층계와도 비교할수 없는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 응축되여있다.

□ 지하전동차의 이모저모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며 지하의 철길우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고있다.

우람차고 미끈한 겉모양새며 형광불빛 황홀하게 발산하는 내부에 의자며 천정이며 바닥이며 손잡이들까지 구석구석의 모든것이 흠잡을데 없이 꾸려진 멋쟁이지하전동차!

허나 그에 어떤 사랑이 깃들어있는지 사람들이 다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기 위해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나오시였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객차안으로 들어서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문득 무릎을 굽히시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시였다.

그 바닥은 티 한점 없이 매끈한 합성수지를 댄 바닥이였다.

아무리 보아야 별다른 점이 없어보였다.

잠시후 기업소의 일군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객차의 바닥에는 매끈매끈한 깔판이 아니라 곰보깔판을 깔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사실 그들은 하나라도 더 멋있게 만들려고 바닥도 흠집 한점 없이 매끈한 자재를 리용하였다.

그러다나니 어린이들과 나이많은 로인들이 넘어질수 있다는것을 타산하지 못했던것이다.

일군이 자기의 실책을 반성하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걸음을 옮기시여 천정에 설치한 손잡이를 잡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잡이가 싼득싼득하다고, 손잡이대에 고무나 수지 같은것을 씌워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개별손잡이를 드리워놓아야 한다고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일군의 충격은 컸다.

지하전동차를 자력으로 만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자고 그렇게도 머리를 썼지만 누구 하나 손잡이대에 고무나 수지를 씌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른쪽출입문 옆좌석에 앉으시며 객차에 늙은이와 장애자들의 좌석을 따로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물론 우리 사람들은 도덕교양을 많이 받았기때문에 늙은이와 장애자들에게 자리를 내여주겠지만 그래도 객차에 늙은이와 장애자들의 좌석을 색갈도 다르게 하던가 글로 표시해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이르시는것이였다.

일군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도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사업에 구현하려고 애써 노력하였다고 자부하였다.

그래서 지하전동차를 만드는 전기간 로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빈구석이 없는가를 밤을 패가며 세세히 따져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적하여주신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후 시운전을 하는 날 또다시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늙은이와 장애자들의 좌석표식은 했지만 의자색갈은 바꾸지 못한것을 지적하시고 객차의 일정한 구간에 접이식의자를 놓아 밀차나 애기차를 세워놓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실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높이는 하늘의 높이에도 비길수가 없다고.

□ 손수 가지고 오신 주사바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9월 어느날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주사기들을 진렬한 방으로 다시 가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무슨 일로 그러실가?)

의문을 안은채 일군들은 그 방에 따라 들어섰다.

방안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꺼내드시였다.

순간 일군들모두는 놀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에 들린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한 여러 형태의 주사바늘과 나비형점적주사바늘, 수지점적주사바늘들이였던것이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왜 그 주사바늘들을 가져오시였는지 의문을 풀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내경이 작은 각종 규격의 주사바늘을 생산하여 사용자들이 용도에 맞게 리용하도록 하고있다고, 동무들도 이 공장에서 생산한 주사기로 주사를 놓으면 이마살을 찌프릴것이라고, 주사바늘은 예민하고 정교하여야 한다고, 환자들

이 가뜩이나 병으로 인한 아픔이 크겠는데 끝이 거친 주사바늘로 살을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고, 더우기 손자, 손녀 같은 어린이들의 포동포동한 팔에 거친 주사바늘을 찌른다고 생각하면 동무들의 마음도 좋지 않을것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때에야 일군들의 의문은 풀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일군들의 눈을 틔워주시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도입된 세계적수준의 주사바늘들을 준비하여 손수 가지고 오신것이였던것이다.

(그래서였구나!)

방금전에도 주사바늘을 손수 손바닥에 문대여보시며 절삭면이 매끈하지 못하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신 원수님이시였다.

그래서 주사기진렬실에 다시 오시였던것이다.

그 까닭을 늦게야 안 공장일군이 저희들은 언제 한번 부모된 심정에서 주사기를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주사바늘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일군들모두의 얼굴에도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에 새기고 새 출발하려는 결의가 력력히 비껴있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실태를 5점채점법으로 평가하면 2.5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2.5점!

이 점수는 결코 공장의 생산수준, 현대화수준에 대한 점수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일하지 못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주시는 엄한 비판이였고 인민관을 바로세울데 대한 경종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주사바늘을 손수 가지고 오시여 저희들을 깨우쳐주신 그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꼭 5점, 만점을 맞겠습니다.)

일군들이 다지는 굳은 결의였다.

□ 우리 식에 대한 정의

평양시 중심부의 창전거리에 현대적인 초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인민극장과 평양아동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이 완공을 가까이할수록 건설을 맡아보는 일군들의 고충은 몹시 컸다.

거리의 건물들을 돌아본 일부 사람들속에서 이것이 우리 식이 아니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고 거기에다가 오래동안 건설을 해온 사람들까지 맞장구를 치고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5월 마감단계에 들어선 창전해맞이식당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때문에 몹시 긴장되여있었다.

그런데 1층 홀에 들어서시여 천정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해맞이식당 1층을 돌아보시며 천정에 원형간접조명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놀랐다.

원형간접조명과 관련하여 비난을 하던 사람들과 원형간접조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렀다.

일군들의 얼굴에 비껴있는 심중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 건축물의 내부에 원형간접조명을 얼마 하지 않다보니 우리 사람들속에서 간접조명을 하는것이 마치 유럽식이 아닌가 하고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축물의 내부에 원형간접조명을 하는것은 철저히 우리 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빛이 여느때없이 빛났다.

그이께서는 만수대지구에 건설한 건축물들은 철저히 우리 인민의 미적감정과 양상에 맞는 우리 식의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우리 나라가 건축분야에서 한계단 비약하였다는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식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게 우리 인민이 창조한것은 다 우리 식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게 우리 인민이 창조한것은 다 우리 식!

우리 식에 대한 통속적이면서도 명백한 말씀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시대는 날로 발전하며 인민들의 문화수준도 끊임없이 높

아지고있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지난 기간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현실과 그에 따라 높아지는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를 보지 못하였으며 지난 시기의 낡은 견해를 척도로 오늘의 현실을 재여보고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주신 우리 식은 세계를 압도해나가려는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는 창조방식, 자강력제일주의가 구현된 창조방식이다.

결국 우리 식은 주체식이다.

스쳐지날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우리 식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를수록 일군들은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식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가지고보니 앞날에 대한 신심이 보다 강렬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 감정과 미감을 더욱 세련시켜 인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식의 창조물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더 많이 일떠세우겠습니다.)

마음속깊이에서 솟구치는 그들의 결의였다.

□ 《눈섭전문가》의 스승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아주신것은 주체105(2016)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병원을 찾으시여 이 병원은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라고, 자신께서는 이미전부터 안과전문치료도 하고 안경봉사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안과종합병원을 하나 건설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안과종합병원을 세계선진수준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이 자신의 소원이였으며 자신께서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경상점에 다시 들어서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안경매대에서 제가끔 안경을 골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매원이 안경을 골라주는것을 보자고, 오늘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시며 판매원에게 한 일군에게 안경을 골라주라고 이르시였다.

상점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판매원을 소개해드리면서 저 동무가 안경봉사부문에서 9년동안 일해온 전문가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런가고, 오늘 자신께서 시험쳐보겠다고 하시였다.

판매원이 얼른 안경 한개를 골라 한 일군에게 끼워주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경을 어떻게 골랐는지 설명해보라고 하시였다.

판매원이 주춤거렸다.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 망설이던 판매원이 직업상 안경이 작으면 안되기때문이라고 그이께 말씀드리였다.

판매원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경상점 봉사자들은 사람들의 얼굴생김새를 보고도 안경을 고를줄 알아야 한다고, 봉사자들은 눈섭이 진하거나 연한 사람, 눈과 눈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좁은 사람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얼굴생김새에 맞는 안경을 봉사할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니, 어쩌면…)

판매원은 그이를 우러르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상점일군과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들에도 감탄의 빛이 력력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신심을 얻은 판매원이 제꺽 다른 안경을 골라 한 일군에게 끼워주었다.

그것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골랐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눈섭이 연해서 진한 색으로 골랐고 땀이 나도 부식되지 않게 수지다리로 선정했습니다.》라고 대답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저 동무가 눈섭전문가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순간 판매원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안경을 골라주는데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있던 판매원이 방금 한 일군에게 안경을 정확히 골라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눈섭전문가》라는 이 세상에 없는 칭호까지 안겨주시니 판매원은 물론 일군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 바로잡아주신 생산공정

예로부터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의 하나로 일러온 김치.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김치 하나에도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새로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의 민족음식인 김치가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있고 그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데 우리가 만든 김치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식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생산공정과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김치발효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김치생산공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공장일군이 밀차에 김치통을 실어 발효실로, 발효실에서 숙성실로, 숙성실에서 김치포장실로 가게 되여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리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시며 현장을 다시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번에 생산공정이 잘못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치생산의 흐름공정은 발효, 숙성, 포장의 련속흐름인데 그 공정의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하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놀라운 시선으로 생산현장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발효실, 포장실, 숙성실…

정말이지 양념가공실옆에 발효실이 있었고 발효실옆에 있어야 할 숙성실은 포장실을 지나 제품견본실옆에 배치되였었다. 결국 발효, 숙성, 포장공정이 하나의 흐름순서로 되여있지 못하였다.

현대적인 공장에 희한한 설비들을 갖추어놓고 김치를 꽝꽝 생산하게 되였다는 들뜬 기분에 생산공정의 불합리에 대해서까지는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직접 김치를 생산하는 운영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그후 공장은 생산의 흐름공정을 완벽하게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은 어느 하나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김치공

장, 표준화된 김치공장으로 전변되였다.

다음해 2017년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발효실과 숙성실, 포장실을 잇달아 배치하였는데 잘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생산공정의 불합리성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대번에 간파하시고 로동자들이 일하기 헐하면서도 생산능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바로잡아주신 그이.

그리시고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잘하였다고 평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일군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 기준은 아이들의 입

주체104(2015)년 11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제품견본실에는 새로 꾸린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어린이식료품견본들이 놓여있었다.

로동자들의 정성이 깃든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해야겠다고 하시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석체계까지 세워놓았으니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에서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전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한자라도 놓칠세라 적어나가던 공장일군은 그이의 말씀에 너무도 격동되여 그 대목에 밑줄을 거듭 그었다.

식료품의 맛을 높이는것, 이는 곧 질을 높이는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세계를 향하는 기본목표였다.

식료품,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전적으로 맛문제, 질문제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두 글자앞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였다.

기준문제였다.

과연 어느 나라 제품을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는가?

공장일군의 생각이 이렇게 허공에서 맴돌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기준에 대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아이들의 입만큼 예민한것은 없다고,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고,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것이라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아이들의 입!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마디마디 적어나가던 공장일군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새여나왔다.

그 일군은 경탄에 찬 눈길로 그이를 우러렀다.

너무도 당연하고 명명백백한 기준이였다.

아이들을 대상하는 공장의 일군이면서도 아이들밖에서 기준을 찾으려 했던 자신이 너무도 어이없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는 최근시기에 와서 공장제품들이 어린이성장발육에 좋은 영양강화제와 생리활성물질들, 비타민 등 영양성분조성에서 질이 높다는 다른 나라 식료품들을 따라선 조건에서 맛문제 역시 다른 나라 식료품을 기준에 놓고 그 해결을 위해 회의도 많이 하고 머리를 싸쥐고 고심도 하였다.

현장에 틀고앉아 수시로 맛도 보면서 잔소리를 했지만 아이들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것이다.

그도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에게 맛있는가 맛없는가를 물은적이 많았다.

하지만 온 나라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지 못하다나니 결국은 제품의 질도 아이들의 입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였다.

깊은 생각속에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가 하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어린이식료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름아닌 아이들

의 입!

공장의 투쟁목표가 명백해졌고 일군의 결심도 확고해졌다.

□ 간곡한 당부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 새로 일떠선 류경치과병원에서는 갑자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원을 찾으시였던것이다.

의사들과 환자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린이치과치료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딸의 치료때문에 그곳에 함께 있던 그애의 아버지가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있는 어린이가 저의 딸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온 나라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드리는 그의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딸이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고 따뜻이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금성제1중학교의 2학년에서 공부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녀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시며 어디 아파서 왔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이발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아이들에게 이발관리를 잘하도록 가르치는데서 부모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시였다.

소녀의 아버지가 머리를 떨구었다.

흔히 사람들이 오복중의 하나라고 일러오는 든든한 이발은 어릴 때부터 치과위생을 잘 지키는것을 전제로 한다. 아이들이 치과위생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직접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 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발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학교에서 배워줄것만 바라지 말고 부모들이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자기 마음의 정통을 찌르는것만 같은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소녀의 아버지는 《원수님!》 하며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렀다.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간곡한 당부에 그는 그만 격정에 넘쳐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더우기 치료를 받고있던 딸의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그리고 또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발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뵙게 되였으니 소녀는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그럴수록 이제부터라도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치과위생을 잘 지키리라 마음다지며 소녀는 작은 손으로 주먹을 꾹 쥐고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료를 잘해줄데 대하여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아버지!)

어린 그 소녀만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터져나온 심장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을 모두 한품에 안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진정이 비껴있었다.

□ 제일 걸린 문제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어느 한 단위의 견본실에서 진렬탁들에 전시된 견본들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마복에서 시선을 멈추시더니 승마복을 잘 만들었다고, 승마복을 잘 만든데다가 거기에 자신께서 선정해준 장식도안대로 수를 놓으니 더 세련되여보인다고, 승마복 웃옷바탕색에 어울리면서도 살아나는 색으로 수를 놓으니 정말 보기 좋다고, 볼수록 멋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만족해하시는 승마복이였지만 일군들에게는 그 칭찬이 아픈 매로 들리였다.

사실 그 승마복도안은 수십여가지나 되는 승마복장식도안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드릴 때 마지막순서에 편집하여 올린 도안이였다.

거의나 맨 마지막자리에 놓이게 된 리유는 그 승마복도

안에 형상된 말이 조선화단붓질수법으로 말머리와 목, 말갈기 이렇게 세가지 요소로 그려져있었고 그것도 말의 앞목은 없고 뒤목만 형상되여있어 매우 단순해보였기때문이였다. 그래서 통과될수 없는 도안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순서에 편집하였던것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고 새로운 눈으로 옷에 새겨진 장식도안을 다시 보니 세워진 귀며 스치는 바람에 흩날리는듯 한 말갈기 할것없이 모든 요소들이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드릴 때 첫번째 순서에 놓인 도안은 월계수장식을 비롯하여 요란하게 장식된것들이였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책은 깊어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안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대상의 본질적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살리면서 주제가 명백하고 한눈에 안겨오게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마크도안창작의 근본원칙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는 말씀이였다.

마크도안창작에서 기본은 단순하면서도 주제가 명백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자기들이 앞에 놓았던 도안과 마지막순서에 놓았던 도안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너무도 크게 안겨왔다.

일군들이 늦게나마 자기들의 실책을 깨닫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지금 우리에게 제일 걸린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지식의 빈곤, 지식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자기들의 실력, 지식의 빈곤과 결핍은 뒤전에 밀어놓고 늘 제일 걸린것이 자재문제, 로력문제라고만 보아오던 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그들의 귀전에는 방금전 경애하는 그이께서 승마복 웃옷 장식도안을 대동강맥주상표도안을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창작가가 창작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실력이 있다고 높이 치하하신 말씀이 파고들었다.

한 산업미술도안창작가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였다.

그 말씀에는 일군들이 실력이 높아야 실력가를 알아본다는 심각한 지적의 뜻도 어려있었다.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할 도안이 마지막 두번째 자리에 놓이게 된것도 결국 일군들의 실력문제였다.

창문가로 바야흐로 려명이 밝아오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일군들에게 더 많이 알아야 앞을 환히 내다볼수 있다는것을 따뜻이 시사해주는것만 같았다.

□ 새로 생긴 승강기

몇해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한 상점을 돌아보실 때에 있은 일이다.

그날 상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2층에 있는 칠면조고기매장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일군에게 문득 매대에 진렬되여있는 칠면조가 몇kg 나가는가고 물으시였다.

5kg짜리도 있고 14kg 나가는것도 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칠면조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고 가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때 일군이 손님들이 상품을 밀차에 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이어 한 일군이 밀차를 밀고 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밀차의 손잡이를 잡으시고 앞뒤로 밀어보시며 무엇인가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에 계단승강기를 놓는 경우에는 자전거처럼 제동기가 달린 밀차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이 밀차는 매대에서나 리용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상점에 승강기를 놓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을 떠나시기에 앞서 앞으로 놓게 될 승강기에 대해 다시금 의논해주시고 상점에 빨리 승강기를 놓아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자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인민사랑속에 상점에는 새로 승강기가 설치되게 되였다.

새로 생긴 승강기.

정녕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낳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

□ 동작원리도 알아야 한다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어느 한 상점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상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봉사활동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2층에 있는 전기용품매대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매대에는 갖가지 전기용품들이 진렬되여있었는데 거기에는 날개가 없이 원통기둥우에 륜을 올려놓은것과 같은 모양을 한 선풍기도 있었다.

잠시 그것을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점일군에게 이 선풍기의 우점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한 일군은 이

선풍기는 날개가 없기때문에 어린이들이 손을 넣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물어보는것은 이 선풍기가 어떤 원리에 의하여 바람을 일으키는가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상점일군은 물론 그 매대의 판매원도 아무런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 선풍기의 동작원리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관심하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님들이 상품을 살 때 그 동작원리를 물어볼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알려줄수 있게 판매원들은 알고있어야 한다고, 판매원들은 자기가 파는 상품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동작원리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단순히 상점에 들어온 상품을 판매만 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매 상품에 대한 파악을 깊이있게 하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 과학연구기지를 또다시 찾으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면불휴의 현지지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주체107(2018)년 새해 정초 또다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빛나는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자력자강의 고향집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모신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그이를 우러르며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여러차례나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과학연구의 방향과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다심한 어버이의 손길로 생활상문제들도 다 풀어주신 덕에 아무런 불편없이 연구사업을 해오는 자기들인데 오늘 이처럼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이곳에 오신 경애하는 그이를 또다시 뵙게 되였으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조선의 과학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과학원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과학자들이 있었고

과학자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자애로운 그이를 뵙고싶은 그리움이 꽉 차고넘쳤다.

이윽하여 과학원청사에로 눈길을 주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앞으로도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 되여야 한다고, 우리 힘을 키워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고 우리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국가과학원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고향집!

뇌리를 번쩍 치는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과학원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한마디의 표현으로 집약화하시여 부각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는 그이의 말씀이 국가과학원은 이 땅에서 창조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의 원종장이 되여야 한다는 높은 뜻으로 새겨지며 자기들의 사업에 대한 원수님의 기대, 인민의 기대를 더 무겁게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 당은 과학교육부문을 매우 중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를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룩하는데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고, 올해도 과학교육의 해로 정하고 과학교육부문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과학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료해하시고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어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과학기술이 낳은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시는 그이의 존안에 시종 기쁨이 넘치시였다.

얼마나 자랑차고 고귀한 우리 식의 창조물들인가.

얼마나 고심참담한 탐구의 나날들이 이 성과물들에 비껴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시물들에서 눈길을 떼시며 자신께서는 오늘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은 자력자강의 보물고이며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오늘과 같은 훌륭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을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우리 일군들이 과학전시관에 전시한 과학기술성과를 보면 신심을 가질것이라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접한 과학원안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의 얼굴마다에 희열이 넘치였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

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과학연구사업을 한다는 이 세상에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돌아보시면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들중의 하나가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문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해 깊이 료해하시다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이 그이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는데 그이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근시안적으로 가시적인 과학기술성과에 만족하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였다. 모든 과학기술적성과의 비결은.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보배이고 금싸래기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

다고 늘 강조하시는것이 아니랴.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먼저 과학자, 기술자들을 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그 위대한 손길이 있어 오늘의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들이 마련될수 있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까지도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국가과학원에 목장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가과학원의 후방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년차적으로 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어느 한 종합시험장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다고 보고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에도 현대적인 돼지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에서 돼지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시험적으로, 실험실격으로 운영하면 다른 돼지공장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본보기로 될수 있으며 그 돼지공장은 돼지시험공장이 될것이라고, 돼지공장뿐아니라 다른 후방기지들도 마찬가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돼지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사료를 보장하는 농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세워주시였다.

참으로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보

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었다.

과학원을 떠나가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바래워드리며 일군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쳤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금방석에 앉혀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이처럼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니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친어버이이십니다.)

□ 다시 그리도록 하신 그림

주체106(2017)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황해남도 과일군을 찾아주시였다.

올해에 과일풍작을 이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게 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과일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과 함께 과일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과일생산실적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보고드리였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시종 기쁨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수연구소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과수연구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복도에 그려져있는 그림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동행하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또다시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마음속으로 자부하고있었다.

한것은 복도에 우리 국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이 그려져있었기때문이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림을 보시며 왜 저 그림을 그렸는가고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시는것이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 우리 조국의 국력의 상징이기때문에 그려놓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렸다.

그런데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인공지구위성보다 한그루에 300알 달린 사과나무를 그렸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다고, 그런 사과나무들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해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일군들의 심장은 쿵쿵 울리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이 세상 만복을 한껏 누리는 인민의 웃음이고 기쁨이며 그이께서는 인민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는것을 일군들은 다시금 절감하였다.

하기에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감히 어째보겠다고 미쳐날뛰는 준엄한 시각에도 사회주의웃음소리, 만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과일들이 꺼지게 달린 과일군을 찾아주신것이 아니랴.

그로부터 얼마후 과수연구소의 복도에 그려져있던 인공지구위성은 한그루에 사과 300알이 달린 나무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뜻깊은 이 그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러면서 보다 륭성번영할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속 진정을 터친다.

저 그림속에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의 참모습이 비껴있다고.

□ 친히 조직해주신 봉사경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5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찾으시였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관점에서 보고 대하시는 그이께서 거리를 돌아보시며 제일 관심하신 문제는 상점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건설되고 꾸려졌는가 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식당의 2층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계단에 설치한 란간과 란주의 형태도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을 가질수 있게 천정조명과 벽장식을 더 잘해줄데 대해서 다심히

이르시였고 각이한 형식으로 건설된 다른 식당들을 돌아보시면서는 식당의 크기와 비품, 장식 및 통풍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몸소 식당의 의자에도 앉아보시며 앞으로 가구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여러 봉사시설들이 은을 내도록 자기들이 제대로 일을 해나가겠는가 하는 근심이 앞섰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식당들사이에 봉사성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느 식당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가 하는것은 봉사자들의 봉사성과 경영전략, 료리의 질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은 눈앞이 탁 트이는것 같았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대로 식당들사이에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벌려나간다면 매 식당의 종업원들이 서로 다른 식당에 뒤지지 않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며 봉사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될것이였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심하면서도 찾지 못한 묘안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앞으로 식

당들사이에, 봉사자들사이에 활발히 벌어질 봉사경쟁을 그려보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일군들을 보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봉사경쟁, 이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경쟁, 인민을 위해 더 충실히 복무하기 위한 경쟁이라는것을.

□ 깊이 새겨주신 복무관점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이였다.

이날은 중복을 이틀 앞둔 날이였다.

한낮의 대기온도가 40℃를 가까이하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자나깨나 소원하던 꿈만 같은 시각을 맞이하였건만 한해치고도 제일 무더운 때에 경애하는 그이를 일터에 모신 공장일군들의 마음은 저으기 송구스러웠다.

그이께서는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텔레비죤방송을 통하여 소개되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질좋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면서 경영활동을 아주 잘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자1작업반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자들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나오고있었다.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해내고있는 흐뭇한 광경을 보여드리게 된 긍지와 자부심에서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만족하신 시선으로 생산공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자 한개를 집어드시고 유심히 살펴보시는것이였다.

(왜 그러실가?)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그이의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과자의 량면에 색이 곱게 들지 않았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봉사단위들은 물론 소비자들속에서도 과자의 색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적은 없었기때문이였다. 더우기 이것은 오래동안 현장에서 제품을 다루어온 생산자들도 미처 느끼지 못한 문제였다.

공장의 제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다는데로부터 만족감에 사로잡혀있던 일군들이여서 받아안은 충격은 자못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계속되였다.

사탕2작업반, 콩우유작업반, 즉석국수작업반…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즐겨 찾는 갖가지 식료품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즉석국수공정을 돌아보시면서는 지배인이 일욕심이 많다고, 그런 욕심은 좋은것이라고 하시였고 진공포장을 하는 고기가공반 로동자의 작업모습을 보실 때에는 공장에 없는것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생산현장들에 그득히 쌓여있는 제품들을 두고서는 이런 공장은 처음 본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자체의 힘으로 소문없이 경영활동을 잘하고 생산을 확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성과를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옷깃이 땀에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여개나 되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복도로 나서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또다시 화제를 과자의 색갈문제에로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과자구이로가 불비한것 같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과자굽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구이로안의 온도와 반죽형성물이 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술적으로 잘 조절하여 지금보다 과

자의 색이 더 고우면서도 고르롭게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그처럼 오랜 시간 현장을 돌아보시는 속에서도 그이의 심중에는 과자색갈문제가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사실 그 과자의 색갈차이는 맛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크지 않은 과자의 색갈차이도 무심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해결방도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하신것이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금방 구워낸 과자의 맛도 보아주시고 50℃가 넘는 로실에까지 들어가보시였는지 그 숭고한 의도가 어려와 눈굽이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곧 과자구이로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였으며 일군들은 비로소 과자의 색갈차이가 로의 불비한 개소에 원인이 있었다는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온몸을 휩싸는 흥분과 경탄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자욱을 되새길수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어야 하며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제품은 완전무결한 명제품이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일군들의 심장을 쾅쾅 두드렸다.

과자색갈의 차이, 정녕 그것은 기술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문제였다.

흐름선을 타고 맛도 좋고 색갈도 고운 과자들이 줄지어 생산되여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정대로 쪼아박듯이 가슴에 새기였다.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을 지닐 때 인민들이 항상 즐겨 찾고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명제품, 명상품을 내놓을수 있다는것을.

□ 《은하수》화장품에 깃든 사연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찾으시였던 평양화장품공장.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 하나하나에도 그이의 빛나는 령도의 자욱자욱이,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아로새겨져있다.

기호와 취미는 향에 따라간다

평양화장품공장이 멋지게 개건되고 설비들의 현대화가 훌륭하게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신 때는 주체106(2017)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공장구내에 들어서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다고,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이 멋있다고, 공장구내가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에는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싶어하는 우리 녀성들의 꿈이 실려있다고, 이제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질좋은 화장품이 생산되여 나오면 누구보다 우리 녀성들이 더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면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한 보람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린것으로 하여 일군들도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보시며 세계화장품공업의 추세와 우리 나라 화장품에 대한 평가, 화장품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향료공업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화장품공업을 발전시키자면 향료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화장품공업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매 공장마다 화장품생산에 쓰는 향료가 다 다르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같은 종류의 화장품을 생산한다고 하여도 서로 다른 향을 쓰고있다고 하시며 사람들자체가 같은 분크림이나 물크림, 살결물이라고 하여도 자기가 좋아하는 향내가 나는것을 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는 향에 따라간다고 볼수 있다고, 향료를 다양화하여야 화장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기호와 취미는 향에 따라간다!

공장일군들은 물론 화장품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말씀이였다.

여러가지 화장품을 써보고 그가운데서 자기한테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화장품을 고정하여 쓰는것을 그 사람의 기호와 취미에 따른것이라고 보는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견해였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나 론리가 없었다.

그이의 말씀을 음미해보던 일군들과 화장품연구사들의 얼굴마다에 희열이 넘쳐흘렀다.

참으로 정확한 말씀이였다.

모든 화장품에서 그 가치의 핵은 향이였다. 어떤 향을 쓰는가에 따라 화장품의 질이 좌우되였고 고급한 향을 쓴 화장품이 곧 고급화장품으로 인정되는것은 사실이였다.

수십년을 화장품전문가로 일해오면서도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가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가를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였다.

그이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알려주신 겔형고착제의 우점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겔형고착제를 바르지 머리기름을 바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머리칼고착제를 분무형뿐아니라 겔형으로도 만들면서 머리미용화장품의 가지수를 다양하게 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분생산장에 들어서시였다.

분생산장은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량쪽으로 입술연지, 머리칼고착제 등 여러 생산공정들이 배치되여있었다.

그이께 일군이 여기가 분생산장이라고 말씀드린 다음 생산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생산흐름선을 가리켜드리며 머리칼고착제생산공정이라고 설명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자신께서 전번에 왔을 때 견본으로 머리칼고착제를 가져다주었는데 꼭 같이 만들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견본대로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좋다고 하시며 이 공장에 화장품견본을 보내줄 재미가 있다고 하시였다.

공장일군들은 그이의 치하의 말씀에 몸둘바를 몰라했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하지 않는 화장품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친히 견본까지 보내주시고도 그 성과를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노력의 결과로 돌려주시는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해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머리칼고착제에는 겔형고착제도 있다고 하시며 겔형고착제의 특성은 머리카락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줄뿐아니라 머리칼의 윤택을 보장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이라고, 남자들은 분무형고착제보다 겔형고착제를 더 많이 쓴다고 고착제발전추세까지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분생산장에서 나오시여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시면서도 겔형고착제는 치약처럼 쥬브에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사용할 때에는 쥬브안에 있는것을 짜가지고 바르게 하여야 한다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가슴그득히 차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화장품의 한 종류에 불과한 머리칼고착제에 대해서까지 깊은 조예를 가지고 그렇듯 세심한 지도를 준 전례가 있었던가.)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이 터치는 심장의 토로였다.

또다시 찍어주신 기념사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둘러보시며 직관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고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렸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이 그이께 연혁소개실을 꾸린 정형에 대해 보고드

리였다.

게시된 직관판들을 공장에서 자체로 만들었다는데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벽에 모신 한장의 사진문헌을 보시며 그때 자신께서 사진을 찍었댔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진문헌밑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날자가 새겨져있었다.

공장일군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러니 오늘은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겠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 웃음꽃이 피여올랐다.

이때 공장일군이 그때 종업원 100여명이 기념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아쉬운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전번에 이 공장에 와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지 못한 종업원들이 몹시 서운해하였다고 한다고, 오늘 평양화장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속에서 감격에 목메인 탄성이 터져올랐다.

얼마나 다심하시고 인정많으신분이신가.

얼마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우리 로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그이께서 기념사진을 찍지 못해 서운해하는 자기들의 마음속 진정을 아시고 즉석에서 풀어주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로동자들이 오열을 터뜨리며 서로 얼싸안았다.

그들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 그것은 지심깊이에서 솟구치는 용암처럼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정이 차고넘쳐 심장속깊이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충정의 분출이였다.

□ 쓸 사람이 좋아해야 좋은 제품이다

제품이 좋은가 나쁜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답을 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몇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방의 한 기업소를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이곳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한 곳에도 들리시였다.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제품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라고 하신 제품이였다.

콤퓨터화면에 현시되는 제품의 기술상태와 도면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살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좋다고, 아주 좋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기술상태가 저 정도이면 대단하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전문기술지식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리해하기 어려운 모든 내용을 순간에 파악하시고 자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지난 시기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자면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이 필요했겠는데 지금은 적은 로력을 가지고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량생산하니 대단한 기술혁신이라고 다시금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른 제품들도 보아주시고나서 실지 그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은 어떤가고 한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일군은 제품들을 써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것과 어느 한 단위의 일군은 공장을 찾아와 제품을 보고는 몹시 감동되여 돌아갔다는 사실까지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제품을 보고 뭐라고 하였는가고 되물으시였다.

일군은 그가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기술자들이라고 한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랬을것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보기에도 좋은것 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리용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한다고, 쓸 사람들이 좋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쓸 사람들이 좋다면 좋은것!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쓸 사람들이란 근로하는 인민이였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해당 제품의 질적수준과 가치정도에만 둔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신 제품의 평가기준은 인민의 요구와 평가이다.

아무리 기술적지표가 높은 훌륭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제품으로 될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일군들은 쓸 사람이 좋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라는 통속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말로 제품평가의 기준을 깨우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였다.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것을.

□ 가방폭포 쏟아지는 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리여 평양의 통일거리에 아담하게 일떠선 현대적인 가방생산기지인 평양가방공장.

여기에는 또 그 얼마나 뜨거운 절세위인의 사랑의 자욱이 수놓아져있는것인가.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주체106(2017)년의 새해 정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가방공장에 오실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하지만 그이께서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이 공장을 찾아주시였을 때는 공장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1월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정문에 들어서시였다.

한눈에 안겨오는 공장건물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든 멋있는 배낭식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 공장에 왔다고,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힘이 솟는다고 말씀하시

였다.

그처럼 만족해하시며 온 천하를 얻으신것처럼 기뻐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오늘의 이 가방공장 하나에만도 얼마나 크나큰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는것인가. 가방천생산으로부터 쟈크생산, 공장건설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자신의 심정을 절절히 피력하시였다.

그리시며 자신께서는 올해 첫 현지지도로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왔는데 올해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뜻깊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참으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고결하고 위대한 후대관이 비껴있는 금언이였다.

공장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 공장의 전경에 시선을 주시며 평양가방공장이 산뜻하고 멋있다고, 평양가방공장을 수도 평양시의 면모에 어울리게 규모있고 문화성있게 잘 건설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공장의 생산조건과 생산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나서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예로부터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열렬한 후대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위인의 이 심장의 토로, 바로 여기에 그 어느 위인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이의 특출한 인생관이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일군들은 그이를 우러르며 형언할수 없는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공장일군을 보시며 동무는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어머니공장의 지배인이라는 책임감을 언제나 간직하고 학생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을 다 담아 질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 그이께서는 공장안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가지 일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시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안창작가를 놀래운 지성의 세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나서 도안창작실에도 들리시였다.

실안에 들어오신 그이께서는 한참동안 내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콤퓨터들이 놓여있는 탁을 보시면서 도안창작실에 있는 콤퓨터탁들을 한쪽으로 몰고 자그마한 회의탁 같은것을 놓아주어 도안창작가들이 자기들이 창작한 도안들을 내놓고 심의도 하고 합평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맞은편 벽면을 보시고는 이 도안창작실에도 원산구두공장 도안실처럼 투영막을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자신께서 원산구두공장에 갔을 때 그곳 일군들이 도안실에 투영기를 설치해놓고는 자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공장의 랭난방조건과 종업원들의 작업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대책까지 세워주신 다음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한 도안창작가에게 가방도안프로그람으로 무엇을 쓰는가고 물으시였다.

도안창작가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용

프로그람은 무엇을 쓰는가고 다시 물으시고는 창작가가 대답을 드리자 《오, CS4.》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도안창작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군들도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앞에 넋을 잃은듯 했다.

전문가들이나 알고있는 전용프로그람에 대하여 너무도 상세히 파악하고계시는 그이의 천재적인 지성의 세계는 참으로 경이적이였다.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를 두고 한두번만 놀라지 않은 일군들이였지만 크지 않은 가방공장의 도안창작실에서 또다시 그이의 높은 지성의 세계에 접하고보니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도안창작실에서 리용하는 콤퓨터는 기종이 높아야 한다고, 지금 가방도안을 창작하면서 사진가공프로그람을 쓰고있는데 도안창작에 쓰이는 전용프로그람이 있을것이라고 일러주시면서 그곳을 떠나시였다.

□ 신념의 장벽, 정신력의 장벽

심심산골의 12월이라면 그야말로 혹한계절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인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였다.

맵짠 추위속에 그이를 마중한 일군들은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바라보시며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여기로 오면서 계속 위대한 장군님 생각만 하였다고, 장군님 생각만 계속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산세험한 곳에까지 오셨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났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발기하시고 발전소언제위치도 정해주시였으며 언제건설이 한창이던 2010년 7월에는 몸소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모든것을 다 풀어주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뜨거운 회억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장군님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해지는 강원도인민들이고 일군들이였다.

일군들의 눈가에 어린 뜨거운것을 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눅잦혀주시려는듯 화제를 돌리시여 강원도에 건설되는 발전소들의 발전능력과 도의 총적인 발전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전기를 뒤집어쓰고도 남을것이라

고 하시면서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전력예비를 차고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아하게 치솟은 언제를 정겨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시였다.

한계를 모르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떠올린 언제!

도인민들이 자력으로 안아올린 저 언제를 어떻게 단순히 건설구조물이라고만 하랴.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자신의 심중을 절절하게 터놓으시였다.

나는 원산군민발전소 언제를 단순히 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언제는 하늘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수령의 사상을 옹위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강원도인민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의 장벽이며 불굴의 정신력의 장벽입니다. …

그이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일군들은 굳어진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그렇듯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강원도인민들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뜨겁게 마쳐와 격동된 심장을 진정할수 없었다.

신념의 장벽!

정신력의 장벽!

정녕 그랬다. 강원도인민들은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언제를 쌓았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언제를 하늘높이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보시며 자신께서 언제인가도 이야기하였지만 강원도인민들이

누구보다 조건이 좋고 누가 도와주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선것이 아니라고, 원산군민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리여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원산군민발전소는 강원도인민들이 장군님을 모실 날을 그리며 어떻게 투쟁하여왔는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산군민발전소는 강원도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떠섰다고, 원산군민발전소는 영웅발전소이라고 하시며 원산군민발전소는 강원도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끝났으나 장내는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다. 그 열기에 의해 12월의 강추위도 가뭇없이 사라진것 같았다.

□ 나라의 중대사라시며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그 강화발전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의 새해 정초에 찾으시였던 평양교원대학.

여기에도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뿌리와 밑거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에 도착하시여 건물들의 전경을 이윽토록 부감하시였다.

일군들에게 건물의 질과 건축형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그이께서는 사범교육기관들가운데서도 교원대학이 맡고있는 임무는 사범대학이 맡고있는 임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교원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는데 따라 유치원과 소학교단계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게 된다고, 소학교시기에는 사람의 세계관과 지적능력의 기초가 닦아지게 되며 중학교시기에는 세계관의 골격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반기초지식이 체득되게 되므로 소학교, 중학교단계의 교육을 맡아하는 교원들을 잘 양성하여야 한다고, 교원대학에서 소학교단계의 교육을 맡아하는 교원들을 잘 양성하여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 세대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학일군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되새겨보았다. 새기면 새길수록 교육사업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감복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대학건물들을 바라보시며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우리 당은 교원대학을 매우 중시한다고, 자신께서는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양원, 교원들이 후

대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교원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뿌리와 밑거름!

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양원, 교원들의 위치와 역할을 짧은 두개의 단어에 담아 명확히 피력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형언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마는 자양분을 쉬임없이 빨아들여 거목을 푸르싱싱하게 자래운다. 밑거름은 대지를 걸구어 식물을 살찌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양원, 교원들이 바로 이러한 뿌리와 밑거름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대학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교원대학에서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후대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될 교육자들을 훌륭히 양성하여 유치원, 소학교교육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얼굴마다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력력하였다.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지름길

교육사업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교원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각지에 있는 교원대학, 사범대학들을 훌륭히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의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사범교육기관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을 건설하자면 교육조건과 환경도 개선하여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교원진영부터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교원진영을 잘 꾸리는것은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라고, 교원진영을 튼튼히 꾸리자면 사범교육기관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각 도들에 있는 교원대학, 사범대학들을 평양교원대학처럼 꾸리는 문제와 교육설비, 교육기자재문제 그리고 대학들을 건설할 시공력량에 대해서까지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학생들을 한등급 높은 단계의 교육사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양원, 교원들로 준비시키는것, 바로 이것이 교원대학에서 내세우고 투쟁해야

할 목표이라고 하시면서 사범교육부문에서는 이것을 중요한 정책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사범교육의 중요성과 그 목표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열정적인 모습.

일군들은 그이의 자애로우신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의 발전된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에서 좋은것은 우리 교육체계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르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범교육기관들을 잘 꾸리고 강화하여야 인재육성에 절실히 필요한 유능한 교원들을 양성할수 있다.

사범교육기관들을 잘 꾸리고 사범교육을 강화하는데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

지름길!

인재강국, 교육강국건설의 지름길!

그이의 말씀은 끝났으나 일군들의 뇌리에선 더욱 강렬히 울리였다.

사범교육을 강화하는데 인재강국, 교육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정식화해주신 적격자

교원진영을 잘 꾸리는것은 인재강국건설, 사회주의교육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교원진영을 튼튼히 꾸리자면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능력있는 교원의 징표는 무엇인가. 교원적격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을 돌아보시며 일군들에게 교원대학 학생들을 교원적격자들로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원은 대학기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일반지식인들과는 다르다고, 교원은 자기가 많은 지식을 습득할뿐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학일군들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도 그이의 말씀에 접하고보니 충격이 크고 생각이 깊어졌다.

사실 그들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잘 배워주어 그들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시키면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한것으로 된다고 자부하고있었다.

이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견해였다.

한마디로 교원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가 많이 알고있는것은 물론 그것을 남에게 배워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원적격자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것은 응당한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사람의 능력은 천태만상이라고, 체육인들만 보아도 선수생활기간에는 실적을 냈지만 감독이 되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리론은 밝지만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대학 학생들가운데도 실기실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면서도 깊이있게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교원대학에서는 교원의 자질 다시말하여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전수하는 능력을 원만히 갖출수 있는 그런 적격자들을 선발하여 공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전수하는 능력을 갖춘 교원.

이는 교원적격자에 대한 정식화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공부를 잘할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가 아는것을 훌륭히 전수하는 능력을 원만히 갖춘 그런 교원적격자들을 더 많이 양성해낼 일념에 불타올랐다.

일화로 보는 위인상
5

필　자	한 영 수
장　정	김 윤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2월 4일
발　행	주체109(2020)년 2월 7일

ㄱ-1464ㄷ

ISBN 978-9946-31-125-8